朝鮮日報
夕刊 九日(水)
本紙朝夕刊十面

伊公使及公使館員의 國外退去를要求
스파이行動과陰謀事實指摘
에國公使聯盟에通告

【쥬네브八日發電通】에디오피아代表와리아르公使는 八日 聯盟에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公使비지氏及 公使館員이 스파이及陰謀를行하고잇슨데 鑑하야 彼等의國外退去를 不得已要求하게되엿다는旨를 通告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의 對聯盟公文書內容

【쥬네브八日發電通】에디오피아政府가 伊太利公使에對하야 國外退去를 要求한 事實을 通告한 에디오피아代表와리아르公使의 對聯盟公文書內容은 左와如하다

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公使館이 에디오피아政府의 抗議一를 惡用하야 라디오로 에디오피아國內를 攪亂하고가혼 不一信行爲를 하지안흘것을 條件으로 前例업는 寬大한處分으로 公使及公使館員의 아디스아베바在留를 許하엿다 그리고 伊太利公使館은 右條件遵守를 誓約하엿슴에도不拘하고 事實上이것을 履行하지안흔것은 에디오피아政府의 深深한 遺憾으로 녁이는바이다 伊太利公使館은 에디오피아의 公安을 妨害하는 陰謀의 溫床이다。 如斯한事情에鑑하야 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公使及 公使館員의 國外退去를 不得已要求하게되엿다

【아디스아베바八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八日伊太利公使빈치가우리처伯에 對하야 公使及公使館全員의即日 國外退去를要求하엿다 右는 아디스아베바駐在伊太利公使館이 에디오피아政府에對한公約에違反하야 極秘裡에 公使館內에서 無線電信機를 使用하야 에디오피아政府의秘密及 軍事機密의中心漏洩의役割을 敢行하엿다는理由에서 基因되는것이다

梨本宮殿下 東京驛御發向朝鮮

【東京電話通】梨本元帥宮殿下께압서는 御附武官 毛利中佐를 다리시고 九日午前九時 東京驛御發 御西下 朝鮮의 師團對抗演習御統監次로 御渡鮮하시엿다

閑院若宮同妃兩殿下 新義州로御向發

閑院若宮、同妃兩殿下께압서는 平壤御視察을 終了하시고 九日午前七時三十八分 平壤御發新義州로 向하시엿다

聯盟史上空前의 緊張한議事進行豫想
★規約十六條制裁規定發動으로★

【쥬네브八日發電通】去五日理事會의 緊急決定에 基하야 招集된 國際聯盟總會는 마춤내 九日午後四時(日本時間十日午前零時)에開會하고 理事會가 伊太利의 行動에 對하야 적은 侵略의 烙印을 基礎로 規約第十六條의 制裁規定發動으로 向하야 聯盟史上 空前의 緊張된 議事를 進行하기로 되엿슨데 聯盟中 이미 四十個國以上의 代表는 八日中에 쥬네브에 到着하엿다 九日 會議는 먼저 和協努力經過에 關한 議長의 報告로부터 開始하야 一般討議의 形式에 基한 列國代表의 意見發表演說이 잇슬터인데 이에 적어도 二日以上을 要하고 마츰내 聯盟國 全部의 投票에依하야 侵略國制裁案採擇으로 옴기기로 되엿스나 在쥬네브伊太利代表部에서는 各國代表에 對하야 八日朝以來 猛烈한 個別的分離運動을 開始하야 各國首府駐在伊太利外交機關과 呼應하야 贊成投票阻止에 모든 努力을 다하고 잇슴으로 假令採擇이 成立되드라도 棄權數는 相當한多數에 達하리라고 豫想된다

最後의裁斷나릴 聯盟總會今日!
四十餘個國의代表이미參集

制裁案發動에關해 英代表部聲明

【쥬네브八日發聯合】聯盟總會를 압두고 英國代表部는 어데까지 敏速且效果的으로 制裁案의 發動을 期할 決議를 說明하고 八日夜 左와如히聲明하엿다 이미 伊太利政府가 聯盟規約을侵犯하엿다는 旨의 判定이 나린以上 聯盟國은 當然 制裁行動을 하지안흐면 안되며 制裁案은 敏速的 效果的일것을 必要로함

一、制裁案을 決定함에 當하여는 一九二一年十月總會의 決議에 準據하야 爲先 外交關係의 斷絶 郵便鐵道 其他의 交通關係의 制限及 經濟的制裁를 考慮하지 안흐면 안된다 經濟的 制裁로서는

一、軍用에 供用할수잇는 物資의 輸出制限及 伊太利品의 輸入制限이 爲先 執行될것이다

一、此等制裁가 實效를 發生치 안코 伊太利政府가 依然 軍事行動을 停止하지안는 境遇에는 伊太利國에對한 封鎖案이 考慮될것이다 封鎖에는 聯盟國全部가 協力하드라도 조코 乃至 聯盟의 管下에 一、二國이 封鎖의 要衝에當할수도잇슬것이다 但封鎖案은全然最後의手段이다

◇規約에疑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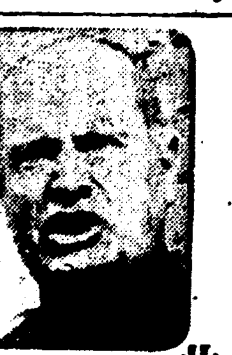
【쥬네브八日發聯合】聯盟理事會가 伊太利政府의 侵略行動을確認한 結果 聯盟規約第十六條를 發動하야 聯盟各國이 近近伊太利政府에對하야 制裁를 加할義務를 負하리라고 觀測되게되엿는데 其後聯盟規約과 聯盟總會 一九二一年十月의 決議와의 關係에對하야 疑義가 發生하야 總會를 目前에두고 諸說이 紛紛한狀態에 잇는데 聯盟事務局其他 各國代表部의一部國際法專門家는 規約第十六條를 自發的으로 發動하는데 猛烈히 異議를 主唱하야 左와如히 批評하엿다

一、聯盟規約第十六條는 起草當時는 侵略國에對하야 自動的으로 發動하는 意味이엿스나 聯盟總會가 一九二一年十月決議案을 採擇하야 右條項을修正한 指針을 決定한 結果右條項의自動性이 喪失하게되엿다

一、따라 規約第十六條의 發動으로 聯盟各國이 制裁實行義務를 負擔하기까지는 聯盟總會一致의 投票를必要함

以上 新見解가 規約第十六條에關한 法權的解釋으로 確立될境遇에는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案發動은 겨우 一票의 反對가 잇드라도 事實上 否決될念慮가 잇다 即 瑞西 匈牙利 墺太利政府는 伊太利政府와 特히密接한 關係가 잇슴으로 쥬네브의形勢는規約第十六條의解釋을 中心으로極度로 緊張을 呈하여잇다

制裁를斷行하면 大大的東阿進出
此가聯盟에對한伊國의回答
伊首相側近者에게談



【羅馬八日發聯合】聯盟總會를明日에압두고 羅馬政界는 依然緊張되여잇는데 一般으로 伊太利가 마춤내 聯盟과分袂할것은 거이時間問題라고 보고잇다 伊首相 뭇솔리니首相은 聯盟理事會의 決議를 밧고 側近者에對하야 「聯盟이 制裁를 斷行하면 伊太利는 卽時大大的으로東阿에 進出할뿐이오 이것이 聯盟에 對한 伊太利의 回答이라」고 말하엿다고傳한다

瑞、匈、墺三國 經濟制裁案에不贊成

【쥬네브八日發聯合】聯盟總會를 目前에 두고 伊太利와 通商的 關係가잇는 瑞西 匈牙利 墺太利三國의 態度는 注目되여잇는데 此等三個國은 伊太利와 各方面으로 적지안케 經濟的關係를가지고 伊太利와 經濟斷交를 行하면 多大한 損害를 激할것은 必定이다 따라 右三個國은 九日總會에서는 贊成하는 意思表示를保留하고 地理的으로 特殊한 關係에잇다는 旨를 理由로 棄權하지안흘는지도 모른다

伊制裁豫想코 沿岸都市防備强化

【羅馬八日發聯合】聯盟總會의決議를기다려 伊太利에對한 制裁實施는 드듸어 必至形勢가되게되엿는데 伊太利沿岸諸市에는 벌서經濟封鎖武力封鎖의 境遇를 豫想하고 數日以來防禦强化에 全力을다하고잇스며 市民은모다 市當局의指令에 應하야 連日에 互하야 防空演習에 從事하고잇다 伊太利國內의 戰時氣分은 只今沸騰點에 達한感이잇다

定例局長會議 宇垣總督訓示

總督府의 定例局長會議는 八日午前十時부터 第三會議室에서開催하고 먼저宇垣總督이 始政二十五週年記念式典의 行事는 盛大히 맛첫는데 大體로 成功의 裏面에는 失敗가잇고 得意의 裏面에 失意가 잇스므로 一層 緊張해 주기바란다 라고細心한 注意를하고 過般의 會議에서 說明한 西北朝鮮視察의 結果에 基하야 同地方의 火田民이 顯著히 減少하고 잇는것가티 보이는것은 北朝鮮開拓의 效果가 들어나고 잇는것인데 이 現象은 平南의 孟山、熙川等 에서는 以前보다 非常히 好結果를나타내고잇서서 北朝鮮開拓事業이 漸次 他에 好影響을 及한 證左이다 또 新興郡東上面에서는 赴戰高原發電事業의 道路工事에 對하야 低賃으로 土工을 引受하야 勞賃撒布를하고잇는데 農閑期를 利用한다는 方面으로보아 자못 조코 또 工費를 低廉케한다는 意味에서도 조흐므로 可及的 이 方面의 研究를 할 必要가잇다 라고 거듭 注意한 다음 兒島會計課長 大野學務課長、山澤農產課長等의報告가 잇고 同十一時四十五分散會하엿다

메멜地方議會 遂獨逸手中에!

【코브노『리트와니아』八日發聯合】메멜地方議會의 總選擧는 九月二十八日 選擧以來 아직 全部開票되지못하엿든데 大勢는 이미 決定되여 나치스系獨逸人은 總議席二十九中 二十四議席을 獲得하야 메멜領의完全한 自治를 確保하게되엿다 開票槪數는 左와如하다

總投票 百九十一萬二千
나치스系獨逸人投票 百五十萬乃至百六十萬票
總議席 二十九
나치스系獨逸人議席 二十四

八面鋒

新穀나자 米價暴落! 해마다 잇는일이지만 너무야속하오。
◇
에디오피아戰爭통에 肥料ㅅ갑이暴騰、明年봄에는 내려주소
◇
米國棉花暴騰으로 朝鮮서도市價昻騰、但共同販賣市勢가 엇덜지는 疑問。
◇
外電 한장이 朝鮮農民의 生活을 左右함을 새삼스럽게 놀날노릇。
◇
友誼로 交分으로는 四面皆敵일지모르나、經濟的相關關係로는 그야말로 四海一家。
◇
이러한때에、이 緊急한 時代에、모르고서 살수가 잇슬가「아는것이 힘」이오「배워야 산다」。

아다가·함스中心 伊軍軍政開始

【아스마라八日發電通】伊太利軍에到着한 情報에依하면 아드그라트東南 아다가·함스에잇서 全住民은 이미全部가 伊太利軍에 投降하엿슨데 伊太利軍은 同部落을 中心으로 軍政을 開始하엿다

中國邊境確保策
蘇中西北協定締結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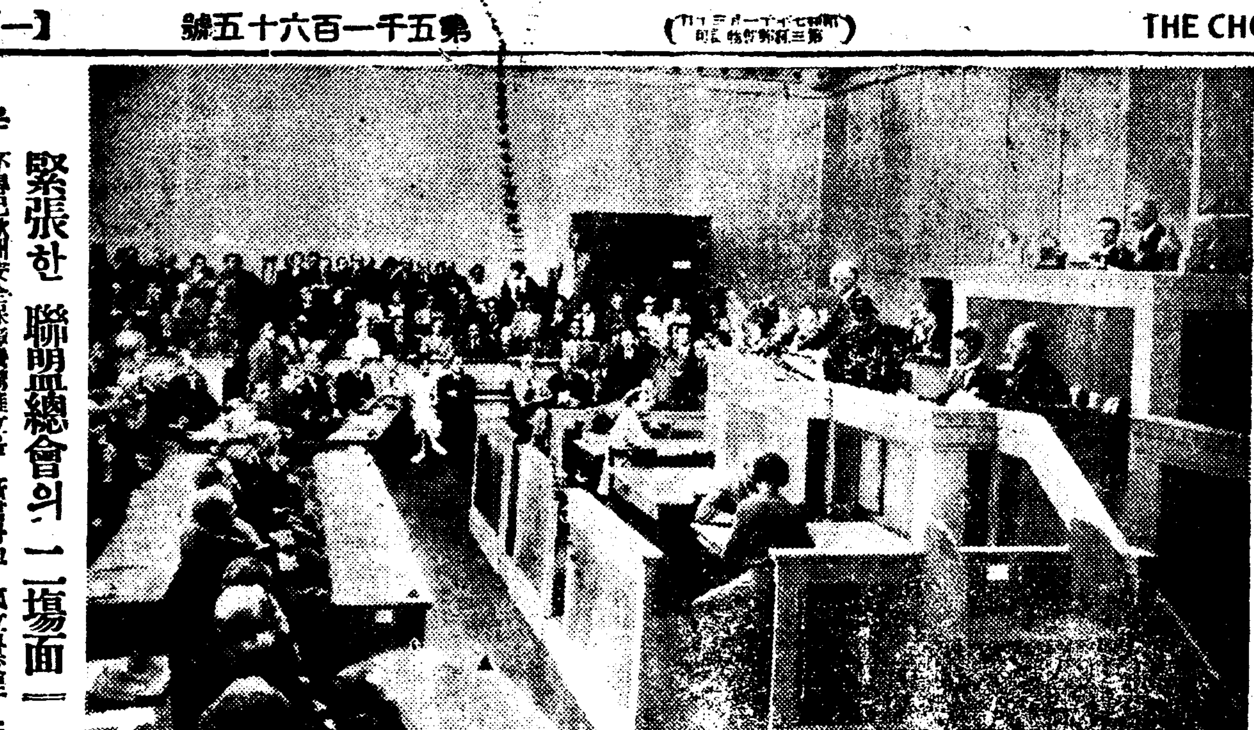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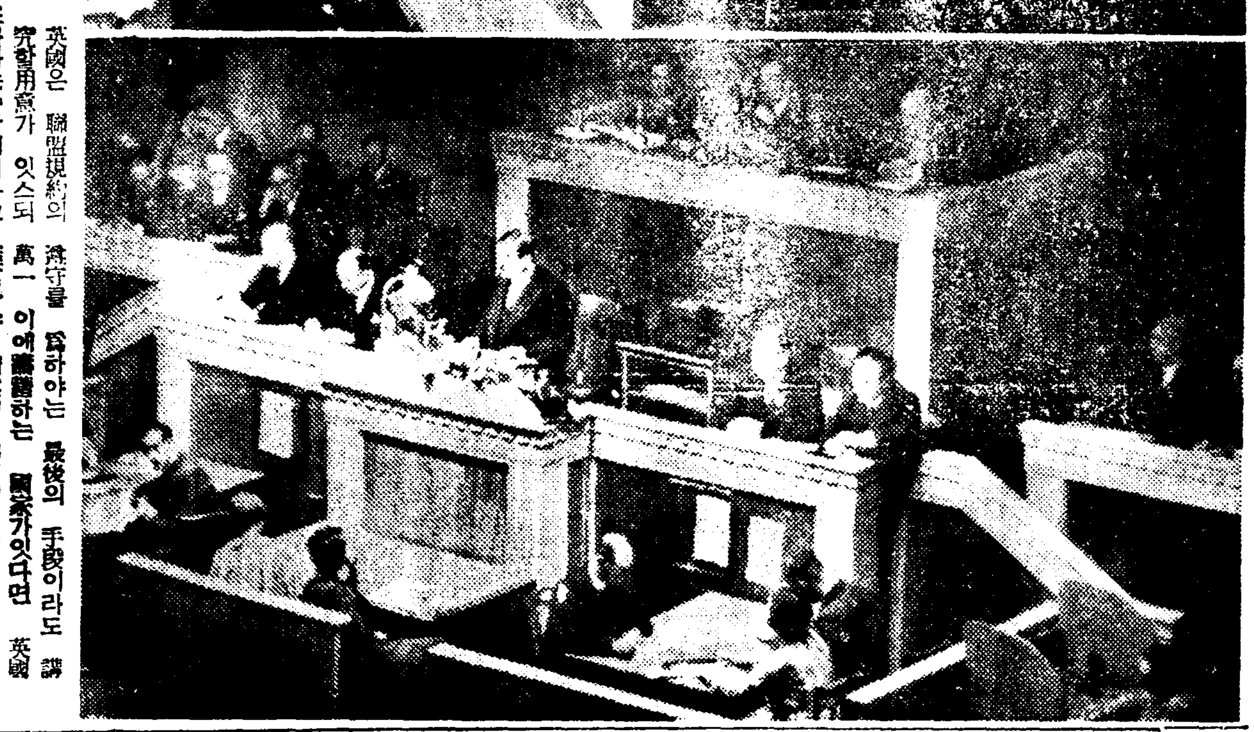
【新京八日發聯合】中國과 蘇聯의 合作說이 屢屢傳播되여 今年七月莫斯科에잇서 第七回國際共產黨大會에서 스탈린書記長이 過去의 關係如何를 不問하고 現在帝國主義를打倒하는 團體로서 蘇聯과 合作한것은 中華民國이다 라고 演說한것은 異常한 센세이슌을 이르키엿는데 當地의 確實한 方面에드러온 情報에依하면 蘇聯은 今年七月一日國民政府와의間에 左와如히 西北協定을 締結한것이 判明되엿다 右協定은 中國側은 全權大使顔惠慶 蘇聯政府外交委員長리트비노프氏와의間에 締結되엿스로 그 內容은 左와如한것이다

中蘇國交의 强固와 通商發達及 極東平和維持를爲하야 中蘇兩國은 西北協定을 締結함

一、中蘇兩國은 第三國이 中國邊疆을 侵害할時에는 共同으로 防衛할 義務가 有함
二、蘇聯은 中國內에잇서 赤化宣傳을 行치안함
三、蘇聯은 新疆省이 行政省의 하나인것을 承認함
四、蘇聯은 中國共產黨의 華中華南 撤退를 承認하고 中國政府는 紅軍의 陝西 甘肅、山西、青海、寧夏 內蒙으로의 移動駐在를 承認함 但 그東侵을 不許함
五、紅軍의 移動에 對하여는 妨害함을 不得함
本大綱은締結日부터效力을發生함

佛專門委員壽府着

【쥬네브八日發聯合】佛國外務省政治總務次長 크ー로올氏는 八日午前 쥬네브에 到着하엿다

緊張한 聯盟總會의 二場面

英國은 聯盟規約의 遵守를 爲하야는 最後의 手段이라도 講究할用意가 잇스되 萬一 이에贊同하는 國家가잇다면 英國은 不得已歐洲安全保障機構確立을 斷言하고 孤立外交로 도라가는수밧게업다고 聲言하야 暗然히 佛國의 協同을 希望하고 伊國에對한 强硬한 態度를 率直히 表白한 九月十一日聯盟總會에서의 호아英外相의 演說은 聯盟史上에 特記할 大演說이엿다。그後를 이어 라발佛首相이 對伊牽制協力을 예기지안는다고한 伊國에對한 宥和的演說은 또한佛國外交轉向을 特記할 大演說이엿다。寫眞은 當日의 緊張한 二場面을박힌것이니 上은 호아英外相의演說、下는 라발佛首相演說

軍部强硬態度繼續時에는 岡田內閣總辭職乎
樞相의進退問題로陸相首相正面對立
機關說問題再燃急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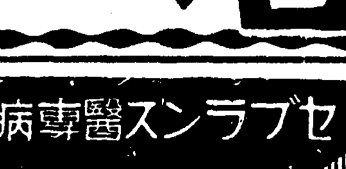
【東京電話通】八日閣議前에行한 首相과 軍部兩相과의 會見結果 國體明徵에 對한 軍部關係相의 立場은 陸軍部內及 鄕軍方面의 强硬派와 政府와의 間에끼여 政府는 자못 重大한 事態에 直面하게되엿다 岡田首相과의 會見에 際하야 川島陸相은 部內强硬派 及鄕軍方面의 激昂한 事態를 傳하는 同時에 政府에 徹底한 措置를 要望하엿다 이에對하야 岡田首相은 이미 政府는 할일은 充分히 했음으로 다시 具體的措置를 講究할 方法은 업다고 思하나 될수잇는대로 考慮하겟다고 答하야 問題의 一木樞相의 進退에 對해서는 理由업시 樞相을 更迭하는것은 全然 생각하지 못하엿다고 거듭 言明한바 大角、川島兩相도 不得已 이를 諒解하엿스나 勿論 其他의 方法으로서 될수잇는대로 强硬한 方面의 意向에 맛도록하도록 努力할것을 協議하엿다 이와가티 岡田首相이 斷然 一木樞相의 進退를 考慮하지안켓다고 述한데 對하야 軍部兩相이 後退한것은 此以上 固執할時는 岡田首相의 總辭職決意를 不得已 하게하는것이라고 認識되기때문인바 問題는 오직 軍部內及鄕軍方面의 今後 情勢如何에 依存되여잇다 軍部兩相이 部內統制上自進하야 一木樞相의 進退를 强迫하게되면 內閣의 運命을 賭해서라도 樞相을 擁護하려하는 政府와 正面衝突할수밧게 업슴으로 事態는 漸次急迫을 告하게되여 岡田首相及 軍部閣僚의 動向에는 多大한注目이 集注되여잇다(寫眞은 陸相)

★ 九月十三日까지 優美館第二週에 續映!! 悲愁한人氣! 熱狂的歡呼의소리
京城撮影所超特作 朝鮮最初의發聲映畵
春香傳
全鮮配給 高麗映畵株式會社 配給 京城府寬勳洞四三

佛로비스超特作 日本版 靑春과 꿈과詩의 映畵 佛國이처음으로가저본 靑春과美의映畵
處女湖
京城授恩洞 團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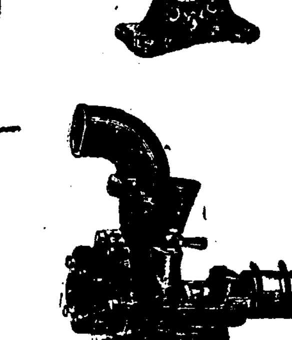
肥滿劑
身體肥滿한데여러가지弊害도無妨하야困難한분은 ... 身體肥滿히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市笄町七十一 小川藥院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營利로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經營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第一 第二
株式會社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科長 擔任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劃期的! 會心名盤!!
Columbia
순풍에 돗을달고 (四〇五九一) 蔡奎燁

月收百圓 世界大流行特許手藝材料 小資本으로月收百圓 男女共新職業 送料四錢切手封入照會하시면見本及商報進呈 特約店募集 朝鮮沙里院邑東里 振京三三七六七 天光堂


名製作品
大陽式無砂精米機。精麥機。押麥ロール機。門碎機。肥料粉末機。粟粉碎機。ジャンボミル。大豆粕粉碎機。フビトグラインダー。渦巻ポンプ。
飯田商會製作部 卸商
名古屋市中區東古渡町三丁目 同 市中區東雲町四八 鐵工部 振替名古屋五〇五一・三一二一番
名城旭 型錄進呈

イカリソース
日本第一産額 日本第一品質 日本第一信用
日本第一 인것

好職業
男女適近不問自宅執業 ...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치질 肛門病科
東光醫院 大田本町二丁目 (電話四九番) (藥物治療顧問)

●齒科器械材料
新合金ワンダー鈑 其他各種在庫品豊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東一銀行南大門支店橫入)
中央齒科商會 電本四二一六八 振替京城一六四九一

浪花館 洋劃專門
△この子捨てざれば
△海の兄弟
△浪人太平記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二
千萬弗의醜聞
裏街의乾林
쇠사슬에묵긴女子
暴風前夜

中央館 永樂町
江戸の垻堝
夕暮の歌
夢の子唄

共學制와各界輿論 (四)

想像만해도悲慘

固有한民族文化擁護를爲하야

朝鮮語學研究會 朴勝彬氏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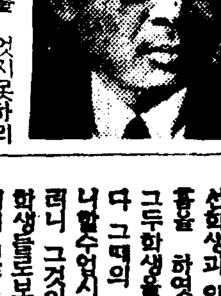
일전에 모신문의보도에 의하면 학무당국자의 책임잇는말이라하야 당국이공학제 실시방침을 부인하엿고 또공학제를실시한다드라도 조선어과를폐지할방침은아니라고 하얏스나 그것은 대단히 모호한 말입니다 지금위정자가 공학제를 실시하려는방침은 어제오늘에 생각난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우리연구하던 가운데서 준비하여온사실로 남은것은 단지 시일문제뿐이아닌가생각할만한 근거가잇슴은 더말할것업습니다 이공학제가실현되는날 이면 조선어와 이를 국초로 삼는조선의 고유문화라는것이 점점쇠퇴하여지고나종에는 존재까지위태하여질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봅니다

그러치안하도 요사히 소위청년회도들중에 조선문과 조선말을 변변히 아는자가 심히적어 한심한일인데 그나마 조선어과를 업시하게될 경우에 이른다면 불원간 조선말이란것은 극소수의 언어학자나 고고학자의 연구자료로 서의 가치밧게 갖지못할 비참한결과를 맺지안흘까 걱정됩니다 그 한민족의 정치적 변동이 그민족의 고유문화를 표현하는 「언어」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쇠퇴시키기도 하는 경험은우리기 력사상으로 흔이 볼수잇는일이지만 그종족이 절멸되지안는이상 언어가 소멸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줄 압니다 만약 공학제가 실시되여 그결과로 조선말이 완전히 소멸될수 잇는 것이라 가정해봅시다 그결과로 필경 과 언어、풍속등이 판이한어린애들이 가정와학교에서 원만히 나갈수는 극대하기어、운일이니 여긔에도 위정자로서의 큰두통거리가 항상남어잇슬것이며 따라서 여러가지폐해가 만흘것도 사실입니다 요컨대 공학제도란것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업시하고 의 언어와 문화를 통제하는결과를맺는 대단히 중대한 내용을가진안으로 생각하면 그러케될것도가튼나 그는 목전의 공학만을 재촉하는 모양이나 파하고 엄연한 정치가가 대국적견지에서 생각하는 정책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당국의 방침이 법령에 나타내지안코장차 이가튼 방침의 유무를 확실히 말치안는다 하드라도 오늘날 조선교육계의추세로보아서 자칫하면 어떠한 방침이나오지나 안흘까 하는 념려를가지게됩니다 이 중대한 「모면든」에귀보가 널리 사회은지세에가장엄한일로 생각합니다 이기회에 널리 여론을 이르키 공학제도의 폐가를 철저히 주장하여야 할 잇슴니다(사진은 박승빈씨)

不幸을豫想

朝鮮語漢文은現在도不足

中東學校長 崔奎東氏 談



결코 조흔결과를 엇지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인지 공학제를실시하고잇는 경성의 어느 실업학교에서 생긴일인데 조선학생과 일본내지인 학생이 싸홈을 하엿는데 학교당국자는 그두학생을 다 퇴학식혓습니다 그때의 경우가 그러케 아니할수업시 되엇겟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당국자로보나 학생들로보나 얼마나 억울한일이 생이 겟습니까 더욱히 완전한 공학제가되어 각학교에현재공학제의 학교보다도 조선학생이 원래 수효가만케된다면 연제의 갈등이상의 갈등이생기고 따러서 당국자들이 아주 딴판의 결과가 생기고 말것입니다 조선어학문의 폐지는 단연불가합니다 지금 형편을 보면 보통학교에는 조선어의 한과목이 명색으로나마 잇기는하나 유야무요 학과당시 중심한 교수를하지는 아니합니다 다 또 중등학교에도 조선어 한문이라는 한 학과가 잇스나 그것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 보통학교와 중등학교에 조선어학과의 시간을 느리어 그것을 강화할 필요는 잇슬지언정 업새인다는것이 말이되지아니합니다 아마 생각건대결코 폐지되지는 아니할듯합니다 전번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普)에 문제가생기엿을때 조선어 정임강사를두게하고 조선어시간을느리어 달라는것이 룸이되것만 보아도 폐지가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이르킬 성질의것이라는것은 틀림가지 업니다 (사진은 최규동씨)

學齡兒童累進超過로 市內도簡易校必要

昨年度의案을復活식히고저

京城府民學校再計畫

해마다 문제되는 초등학교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초과문제는 각가지가 다한가지로 말성되는것이지만 특히 경성시내에는 더욱심하야 봄이면 완연한 전쟁긔분과가티 수선한 경경을이르키므로 경성부 학무과에서는지난봄에 작년부터 총독부에서 각지에 간이학교(簡易學校)를 둠에 딸아시내팔개보통학교에다가 그교실과 그설비와 그교원을 전부그대로 사용하고 당임교원들에게 간략한 수당(手當)정도의 사례를한다음 경성부민학교(京城府民學校)란는 명칭으로 학령과에 잇는 아동으로 입학치못한아동들을 오후에 수용하야 간이교육을 하고자한것이엇는데 엇지된 까닭인지 그안이 경긔도에서 각하되여 실현을 못보엿는데 다시명년도 예산을편성함에 당하야 여긔대한 예산을 계산하고 다시 간이학교의 실현을도모하리라한다 경성부내의 학급(學級) 증가는 지난봄부터 소위 십개년 계획이라는것을 가지고 매년 입학년울 세학급식만 늘이기로 되얏스므로 수용력의 증가가 지지부진함에 반하야 이간이교육안이 실현만된다면 실로 현재밀리는 학령아동의 반수이상을넉넉히 소화식힐수잇스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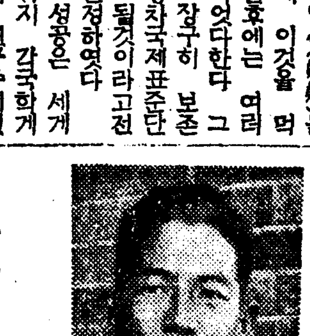
朝鮮新進學者 世界的發見

비타민E의결정체를어더

定平出生金良瑕氏

대정십오년에 동경제대리학부화학과(東大理學化學科)를 졸업하고 계속하야 리화학연구소령목연구실(理化學研究所鈴木研究室)에서 연구중인 함남정평(定平)출생의 김량하(金良瑕)(三一)씨는 이번 동물의번식에 중대한관계를 맺고잇는「빗타민E」의연구에 성공하야 지난이십오일 농예화학회(農藝化學會)에 이를발표하야 비타민연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령목매태랑(鈴木梅太郞)박사등 학자들의칭송을 바닷는데 내용을요약해보면 쌀눈(米胚芽)에서 비타민E의 순수결정을어더 분자식(分子式)을 명확히하고다 시성(性)「홀몬」과의관계를 증명하야 홀몬문제(劑)의 대신으로 비타민E에 의하야 젊어지는 효과를 어들수잇게 되다는것이다 쌀눈에다「나푸타린·칼코산」(酸)을화합(化合)하야 이러한결정체의비타민E를 어덧는데 백「그람」의 쌀눈에서 순흙의 옥크람을 어덧다하며 임신(姙娠)를 능이된 쥐한마리에 이것을 먹엿는바 이、삼주일후에는 여러마리의 색기를 나엇다한다 그리고 그결정체는 장구히 보존할수잇는것으로 장차국제표준단위(國際標準單位)가 될것이라고전긔 령목박사는 인정하엿다 김씨의 연구의 성공은 세계적발명으로 지금까지 각국학계에서 다수한학자가 연구중이엇든것으로「홀몬」과 갓치 절머지는 효과를 어들수잇스리라하야 생리학(生理學)상실히 흥미잇는 문제라하야 학계에서는크게중요시하고잇다(사진은 김씨)

金俊曄氏 英國에留學



황해도 해주읍(海州邑)에 본적을 둔 김준엽(金俊曄)씨는소화삼년동경외국어학교로어과(東京外國語學校露語科)를 졸업하고 경성에 도라와 경성주재쏘베트 련방총령사관(駐京城蘇聯總領事館)과 동통상국(通商局)에 근무하다가 통상국의 철회후 고향해주에서 휴양중 금번 영국에 유학차로오는 십이일 경성을출발한다는데 영국서는 우선 론돈서일개년간 영어를 공부하고 다음캠부릿지대학에서 언어학을 삼사년간 전공하리라한다 (사진은 김준엽씨)

大田、永登浦間의 復線案豫算要求

京義線汽動車增結等의新計畫

明年鐵道豫算二千七百萬圓

철도국의 명년도예산은 사업공채에의하야 예산총액은 금년부터 삼백만원을 증가하야 이천칠백만원에 달하는데 사철(私鐵)매수와 영등포(永登浦) 대전(大田)간의 복선공사를 비롯하야 명년에는 평양(平壤)과 안동(安東)간에 긔동차(두대련결)를 두왕복운전하야 화물과려객의혼합(混合)렬차의 두왕복운전은 폐지할터이라한다 긔동차는삼등과이등으로 쾌속렬차보다 속력이 현재의화물혼합차보다 이매우빨른것이라한다

病死한兒孩를 池中에棄遺

【大邱】오배원천상을 걸고 수색에 렬중하든 유아는 물에빠저 죽어잇는 시체를 발견하지 죽후에 아죽것 일반으로하여곰 타살이냐 자살이냐의 의문을품지못하게한 일이잇든 이지음에 또 의사체(溺死體)(두살가량되는남아)가 대구부외내당동(府外內塘洞) 왜관(倭館)천변 風보기점못에 떠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곳대구서에 고발한바 대구서원은 공의와 현장에 출장하야 검사한결과 사후 일주야를 경과하엿스며 급성폐염(急性肺炎)으로 사망한것이판명되엿는데 대구서에서는 병으로 죽은 시체를 물에 수장하는 리유에 의혹을 가젓다하며 한편으로는 재래 미신상으로 죽은자식을 수장하면 남은 자식의 화근을 업새다는 미신의 행동이나 아닌가 하고 판정한다고한다

大演習압두고 市內또檢索

昨夜各署十數名檢束

륙군대연습(陸軍大演習)을 압두고 시내 각서 에서 철통가튼 경계를 계속하든중 구일에새벽 시내각서에서는 총동원하야 각 관내를 일제히 수사하고 거동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인치하엿는데 각서에서 검거한상황을보면 종로서(鍾路署)에서는 남자십이명을 검속하야 취조한후 즉시 전부를 석방 하엿고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 검거한 구명중에는 요시찰녀자까지 세명이끼여잇서 형사실문을 꼭닷고서 방금취조중이며 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도 남자 두명을 검거하야 아즉 취조중에 잇다

偽證罪確定前에는 死刑執行猶豫를不許

偽證告白書가 吳天一을 살릴수잇슬까

아슬아슬한法의手續順序

아비가 가입한 보험금을 탐내어수하사람을식혀 그아비를 죽이게한것으로 일심이심과 상고공판에서 사형을바덧고 그뒤에재심까지 기각을 당한 시부법 오천일(吳天一)의 형을 결정케 한 유력한 증인 추학순(秋鶴順)(오천일에게서 돈을밧고 오천일의 아비를 죽인후 만주로 다러낫다는 장의경(張義京)의안해)이가 경찰서에서와 일심이심에서 오천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사실을 번복하는 고백서(告白書)를 경성 고등법원회두(高院)재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미 사형의 확정판결을 밧고 집행의 날자를 기다리든 이사건에 아연 센세-숀을 이르키게 되엇다 그러면 이 추학순의 고백서가 아프로 이사건에 대하야 어떠한 결과를 미칠것인가 위선 당국한 재판소방면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 고백서가 번이되어 히두(寫頭)재판장과 옥명(玉名)검사의 손에 너머가기는 하엿스나 재판소로서는 거기에대하야 자진해서아모런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일 이라도 사형집행의 결재가 나면집행을하게될뿐이라한다 다만 그동안에 오천일자신이 례의 추학순의 고백서에 의하야 추학순을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여가지고 추학순에 대한 위증죄의 확정판결이 날때에는 그것을 재료삼어 오천일은 비로소 재심을 청구할수 잇게되다는것이다 그리하야 문제는 과연 추학순의 위증죄에대한 확가령 추학순의 위증죄의 확정판결이 내리어 재심을 청구한다더래도 그것만 으로 재판장은 즉시 오천일의 무죄를시인하겟느냐하는 델리-케트한문제를 내포하고잇서 오천일은 살어날수잇느냐、그대로 죽을것이냐하는 아슬아슬한 경우에립하야잇서서 세상의 주목은 비상히 놉하가고잇다

太宰辯護士 談

이에대하야 오천일의 변론을 담당하엿든 태재(太宰)변호사는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그러한 고백서가 드러왓다는소식은 지금 처음드럿습니다 만일그것이 사실이라면 평양에서 일심이심때부터 오천일의 변론을 담당해온 주간(朱幹)변호사와 상의하여가지고 수속을 거처 재심청구라도 하겟습니다 전번에 재심청구를 하엿다가기각을 당하엿스나 그때의 재료와 금번의재료는 서로 다르니까 다시 해도무방합니다

兒童虐待防止 法令實施要望

社會事業協會大會에서

救護法은實施困難

일전총독부에서 열리엇든 조선사회사업대회 석상에서 각지에서 제출된 건의안(建議案)으로 의를 하여 결정한것은 구호법(救護法)의시제정실시와 방면위원(方面委員)제도의 확충과 또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실시에 관한것을 토의하야 결의 형식으로 총독부의 실시를 촉진하여 달라고제출하엿다 그런데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하야는 이것을 실시하려고 이미사회과에서 시안(試案)을 작성하엿다 한은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사회과에서는 일간현재의 아동 학대 방지법으로 보호할아동의수를 실업일까지 조사보고하라고 각도에통달하엿슴으로 이보고를재료로 법령을 제정한후 실시를 할작정이라하며 구호법의 제정실시에는 아즉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관계상 급속한 실현은 극대할수업다한다

裡里署에서 靑年數名檢擧

【裡里】전북평야를 중심으로 사단대항연습이 임박함을따라 요시찰인이라고 할만한인물을 검속한다 지난칠일에 리리서원이 본보리리지국총무 박봉주외수명을 또검속하고 동시에 가택수색까지 병행하엿다고한다

阿蘇山噴火

【熊本電話聯合】록일아츰 큰소리가 나며 별안간 활동을 개시한 아소산(阿蘇山)제일화구(火口)는 팔일에는 직경일센치내지 이삼센치의 적은돌을 내뿜고 잇는데 아소지방 일대에는 재가삼「센치」이상이나 싸히여 농작물의피해가 상당할 모양이다 그런데 화구는 점점더 커가는듯이보인다

故鄕인羅州에 朴烏人安着

多數人士盛大히歡迎

【羅州】팔일 오전십일시 십칠분여의도(汝矣島)경성비행장을출발하야 남으로 라주의 하늘로 최후의코-스를날어간 일등비행사 이등항공사 박봉지(朴奉祉)군은 도중에 광주(光州)상공을 수차선회하고 수입전부터손곱아 기다리든 라주의 명랑한 공중에 장쾌한 폭음(爆音)이들리자 박군의용자가 나타나니 전시민의 우뢰가튼 환호성(歡呼聲)이 일어낫다 박군은 저공비행을 하면서 마저주는 군중에게 경의를 표하고 오후일시사십분에영산포(榮山浦)에 가설된비행장에 무사히착륙하엿다 박군은 늙으신 어머니를 비롯하야 수만군중에 싸인채 잠시간은 감격에 넘친 목묵한순간이 계속되엿다 이로서 박군의고로방문비행은 지난사일 동경(東京)을 출발하야 이래오일동안여러가지 장해를헤치고 최후의목적을 다하게되엿는데 라주에서 이삼일간 쉬이고 친우 김동업(金東業)씨와 가티다시 경성으로 날러올예정이라한다

江景에火災

【江景】강경읍정리영구의집에서 지난오일 오전네시경 방을말리는 장작불이 재목에 단기여 동가를 태워바리엿다는바 손해는 약오백원 가량이라하며 진화되기는오전오시반경이엿다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七六八미리의 移動性高氣壓은 朝鮮及日本에擴大되고 滿洲及北中國은 氣壓이얏다 滿洲朝鮮은 모다호리고 氣溫은昨朝보다 二度乃至十一度놉허젓다

昨日最高 二〇、一
同 最低 一三、三
今日正午 二一、〇

運動競技

全京城基靑 庭球大會

十七日徹新코-트

朝鮮基督靑年勉勵會 京城聯合會體育部主催의 第五回全京城基督靑年庭球大會는 來十七日 午前九時부터 市內蓮池洞徹新코-트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團體는 十五日까지 鍾路二丁目九一崔仁化氏(光五五七)게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參加規定 京城市內男女基督敎靑年 勉勵 엡윗各會에서 各會長의 認證을바든 필으로一團體에서 五組以內로 參加金 一團體五十錢式 添付申請할것

◇大會委員
▲大會長 崔明鶴
▲總務部委員 申泰善 崔仁化 韓仁浩 洪 憙
▲競技部委員 金英鈞 李東煥 李惠英
▲審判部委員 金鍵 金鳴善 姜惠集 許擧洛
▲設備部委員 洪鍾珉 李吉鉉 金永源 金奉龍
▲接待部委員 鄭奉院 金永煥 鄭淳南 李晌甲
▲記錄部委員 李良燮 尹聖德 高在天 姜信晶
▲施賞部委員 安大善 車載明 吳天泳 朱寔成 崔明鶴

平壤奬武會 團體柔道에出戰

【平壤】平壤奬武會에서는 京城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來十二日에行하는 第七回全朝鮮團體柔道大會에 出戰코저 數個月前부터 猛烈히 練習을 하여오든바 十二分의自信을 가지고 參加키로決定되여 十一日午後三時十三分 平壤驛發列車로 師範洪澤俊氏引率下에 上京한다는데 陣容은 다음과갓다

金熙夏 李光弼(以上一級) 金恩福 鄭鎬甫 韓東洙(以上二級) 吳福李信官

東京에派遣할 陸上選手決定

東京에서 열리는 第八回 明治神宮大會陸上競技派遣의 朝鮮代表選手는 九日다음과가티 決定한바 一行은 來二十六日 京城을 出發하야 十一月五日에 歸京할豫定이다

▲監督=富田勳 ▲選手=柳長春(五千、一萬米)▲孫基禎(마라손) 富田幸治([illegible]) 金煥民(高跳·四百米障碍) 金鋼元(二百米 四百米)

平蹴과漁大津對峙

朝鮮神宮競技 蹴球一般部 第一回戰의 平蹴對全馬山戰은 十一日 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豫定이엿스나 全馬山의 棄權으로 平蹴은 不戰一勝하야 十二日午後四時부터 열리는 準決勝戰에 咸北代表 漁大津과對峙케되엿다

鐵道野球臺灣에遠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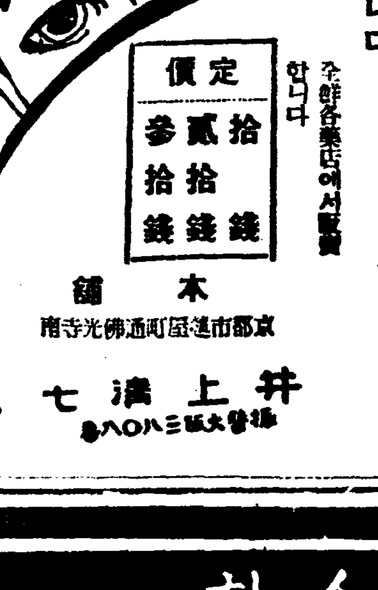
鐵道局을中心삼은 全京城野球團의 泉谷野球委員以下二十三名은 臺灣體育協會主催 朝滿臺對抗運動競技大會에 出場코저 十日午前十時五十六分 龍山發列車로臺灣에 遠征케되엿는데 一行은鐵道局員以外에 橋本(京電) 保田(殖銀) 藤井(遞信)의三選手를加入하야 臺北에서二回 臺中에서一回 高雄에서一回 臺南에서一回의試合을 行할豫定이라한다

太田胃散
藥効如神
四時常備의胃病靈藥
東京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서發賣

金 銀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へイゼウフシ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第三期患者도念慮마십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인나는世上에 흔한賣藥과療法에莫大한金錢을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보앗스나죽엄을기다릴뿐인重病에나는安心하고잇슬수업슴으로全生命을밧처가며모든全快法을研究하엿습니다 研究가헛되지안허 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드듸어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되엿습니다 나에게는 가장有効한 肺病特効藥其他病잇슬當時의 實驗談藥의選擇法 갑흔기침곳치는法喀血處置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 肺病治療秘訣을一一히懇切叮嚀히無料로누구나에게는지가르처드립니다 또特殊한患者에게는 特効良藥을無代로드립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苦生하시는분은 이글을보시게된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하로의猶豫가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 이新聞名(朝鮮日報)를記入하야 一時라도速히肺病全快法無料送付하라고하십시요 이것도敎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 것이오니 奉仕하고잇는사람입니다 아모조록安心하시고問議하야주십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二三
松島教正

肺病必治
꼭낫는다!!
無料(內務省(衛生局)統計의結核에關한 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療法을가르처드리고 또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흔藥과조흔養生을알려는사람에게
身熱이나리지안는분 기침이끗치지안는분 밤에식은땀나는분 喘息되는분 喀血되는분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每日膿痰하는분 胃腸이弱한분 頭痛나는분 倦怠症나는분 胸腰痛잇는분 關節이잇는분
엇더한重症患者라도勿爲失望



이노우에눈씻는약
井上目洗藥
속하고잘낫는
안질일절의량제
정상눈씻는약
井上目洗藥은如何한眼疾에던지 絶對로神効합니다
一次井上家寶의眼疾藥을使用하신분은藥効의偉用이多大함을 말합니다
全鮮各藥店에서販賣합니다
本舖 京都市寺町通佛光寺南
井上淸七 振替大阪三八〇八番

喘息新治療藥
고데스
錠劑 粉末 シロップ
고데스는內服後直時興奮되는咳嗽中樞神經을鎭靜식히고氣道의炎症을除去하야分泌물을덜하게하야서• 그喀出을容易하게하는故로喘息其他咳嗽에對하야敏活히奏効함 他副作用이업고連用에도無害함
適應症 喘息 急性及慢性氣管支가다루 咽頭가다루 氣管支炎 肺炎 감기
二錢切手送付하시면試用에는見本을無代進呈
定價三十錢부터五圓까지全道藥房에서販賣함
合資會社 笹岡製藥所

우수한 치림약
리베-루 リベール
効力은 安全療法
日本內地海外各國에서 好評嘖嘖 輸出十五개國에進出하다。
… 服藥五六時間後小便은 … 排泄하며 尿道의淋菌은放尿와가티殺菌排泄한다。 그럼으로고름이 除去되고 痛症이爽快히消散된다 이服藥前과 服藥後의尿를다보와서專門醫에付托하야 顯微鏡으로보게하면 淋菌殺滅狀態가分明히 보인다。
自家尿道洗滌及局所療法等은大端危險하야 可恐할睾丸炎에걸리게될 우려가잇스니注意하시라。
單白檀油球와발사무球等은數日의連用으로도빨리習慣性이되야 그後로는얼마를먹어도 白色膿은끈치지안는다 리베-루의 優秀價値는여기에잇다。
時機를勿失하고 他藥에迷惑지마시고몬저藥局에 리베-루의 一箱을곳試服하시라。
꼭指名하야求하시라。 品切時는本舖에直接注文하시라(送料無料)
價 藥 [illegible]
大阪市南久太郎町
本舖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
到處藥房에잇슴

쩡쩡한가을볕에 퇴색하기쉬운물감

=이때에주의하여야할몃가지=

가을에는 공긔속에 수증긔가 적은때문에 가을볕살은 녀름보다도 강하며 따라서 산화작용(酸化作用)을하는 자외선(紫外線)이라는것도 녀름보다 강한것입니다. 그럼으로 요사이가튼때는 옷에 염색을잘못하면 벗어 말리는동안에 퇴색이되기쉬운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물감이 자외선에 대해서 약하냐하면 이것은 빛깔에따라난것이아니고 차라리 물감의성질에딸닌것으로서 흔히자지빛은 퇴색되기쉽다고하나 다가튼 자지빛중에서도 다른빛갈보다 훨신더 오래가는것이잇습니다. 그럼으로 결국은 염료성(染料性)이물감이 [illegible]

[illegible] 지고잇슴으로 그다지간단하게는 말할수업습니다.

그러나 이물감의성질을 석명하는때에는 우선 [illegible] 되도록 빼하가지고 적은그릇에넣고 물을조곰씩부어서 물감을흐리가지고 팔팔끄려봅니다. 빛갈나가거든 「란닌」산(이것은 어떠한 약국에서던지 다 파는것인데 일전어치만해도 넉넉합니다)의 가루를 아주적게넣습니다. 그러 [illegible] 빛이 [illegible] 흐려지고 무어인지 [illegible] 안는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엑스성인 물감은 대게빛갈이아주 선명한때로 처음을 띄어는 매우곱게 보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물감을 쓰게될때에는 어떠케말니느냐하면 절대로 해볕치 쨍쨍한데 말니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그늘진데를 골나 바람이나 잘통하는데서 말니지아니하면 안됩니다.

곳업는 그 구덥을 하로 쯤 벗어봄즉

밤대추도한참、고추닙도한참 겸삼수삼들박그로

요사이는 바람이 좀 찰듯해도 볕이 잇서 아조 조흔 일긔올시다. 이런 조흔 일긔를 당하야 하로쯤의 소풍을 해 보시는 것도 해롭지 안습니다. 지나간 한녀름 동안은 더위에 복개고 땀에 배어 얼마나 괴롭게 지내 오셧습니가. 또 지금부터는 겨울옷을 마친다 김장을 준비한다 무슨 틈에 한가한 거름을 걸어 보시겟습니까? 그저 이맘때 한번 소풍을 안 해 보시면 일년을 고대로 구덩속에서 살아 버리시는 셈입니다. 그야 사정이 가능치 못한 것을 억지로는 권고할 맛이 업지요만은 될수잇는대까지 강권하고 십습니다.

밤도 한참이요 대추도 한참입니다. 장에서나 가가에서나 그런 실과를 못 살 것은 아니지요만은 이왕 살빼에야 제고장에 가서 사는 것이 재미잇는 일이 아니겟습니까?

제고장이라고

밤도 싸것도 아니요 또 조흔것을 살것도 아니겟지요만은 그러케 가서 사는것이 운치잇는 일이 아니겟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시세를 잘아는분은 물론 싸게도 살수가 잇지안코 또 물건을 잘아시는 분은 조흔것을 골라서 살수도 업지안습니다. 오래오래 저장해 노코 자시도록 만히 사시려면 시내에서 사는것보담도 그산지에 가서 직접사시는것이 득될수 업지도 안습니다.

×

고추닙도 지금이 한참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듬기가 귀찬코 성가신것은 사실이오나 겨울의 고추닙나물이 얼마나 맛난지 아시니까? 물론고추를 다따고 남은 찌그러지를 그대로 파는 것이 그역시 사실이오나 그래도 거긔서 거두어 오는 고추만 해도 얼마나 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뿐이 아니라 남에게 살림이 알들한 것으로 자랑하자면 조그만데도 유렴수성잇는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추닙 나물이 썩 사귀치 안타고 하더라도 그 한 접시를 가저서 그 주부의 유렴수성을 표시하기에는 더 다시업는 조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추닙해오는

것도 신통스럽게 생각지 안하시리라는 말슴입니다.

×

바뿌신 부인네더러 하로를 공연히 놀아서 업새시라는 것은 무리오나 과실을 살스겸 또 혹 고추닙을 해올스겸 하로의 소풍을 하실 수는 업지 안습니다. 그야말로 원님도 보고 환자도 타는 셈으로 일거의량득입니다. 그런데 사정모르는 사랑량반들은 공연히 아지도 못하고 어대로 실과를 사러 가느냐는둥 무엇하러 고추닙을 해 오느냐는둥 눈을 흘기시는 분도 간혹업지 안합니다. 그런분네야말로

조금도안해를

리해할스줄 모르는 불행사정의 인물입니다.

家庭醫學

가슴이아프오

問 금년 서른세된 남자인대 약 [illegible] 개월전부터 왼쪽 가슴이 아픔니다. 지금은 더욱 심하오며 찬바람을 맛거나 운동을하면 더욱 심합니다. 요새는 바른편도 때때로 그럿습니다. 평소에도 가슴이 무근하게 답답합니다. 이런때에는 답답한것이 업서집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바드니 륵막염의 시초라고요. 선생님 자세하게 판단하야 주십시요. 도저히 법도 가라처 주시기 천만 바랍니다(定平金)

答 진찰도 안하고서 자세한 판단을하라하오니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증세로보면 륵막염의 시초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흉부신경통(胸部神經痛)이나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어떠면 때때로 잇는것 그것은 몸이 [illegible] 것을 보아서 그러케 생각됩니다. 좌고처방을 복용하야 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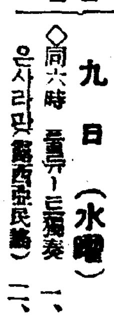
쁘로―므라듸 一、〇
쁘로바린 〇、五
훼나세진 〇、五
미크레닌 〇、五
乳糖 適宜
右處方一日三回食間服用 一週間連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우유로 크는 애기에게 반드시 실과를 먹일일

비타민、씨가 부족한때에는 니ㅅ몸에서 피가 난다는등 무서운 괴혈병(壞血病)이 일어난다는등 하는것은 잘아는 일이지만 애밴 부인에게 특별히 필요하다는것은 잘들 모르는 모양입니다. 해산한후 얼마안되야 곳 죽는아희들이 대개 비타민씨의 부족을 말미암는다는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이라 어머니 그자신의 몸을 위하다느니보담 태아의 장래를 위하야 비타민씨를 될수잇는데까지 만히 섭취해야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유로 크는 아희들에게는 넘우 우유를 끄려서 비타민、씨가 업서저 버리지 안토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씨는 뜨거운것에 견듸지 못하야 칠십도 되야도 고만 업서저버립니다. 그러고 첫에는 물론 비타민 씨가 들어 잇지요만은 어머니의 음식물을 딸아 만키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젓먹이를가지신 어머니들도 비타민、씨를 만히 잡숫는 것이 조켓습니다.

(비타민、씨가 만히는 음식물) 토마토、레몬、귤、사과、시금치、호배추、홍당무、고그마、다마네기、



九日(水曜)

◇同六時 童謠―트獨奏 一、붉은사라판(露西亞民謠) 二、그 [illegible] 作曲 三、로데어다이어(스웨―던民謠) 四、한―엘(愛蘭民謠) 李[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과小學校[illegible](二) 金浩植

◇同八時 (東)피아노와管絃樂 (사사―오[illegible])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아노 [illegible] 田[illegible]作

◇同八時五〇分 漫談 黃材景

◇同九時一五分 時調와잡타령 一、時調 二、자롱 三、잡타령 李文源

十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東) 木曜畫사―르

◇同三時一五分 家庭講座 主婦의任務 朴正淑

◇同四時 뉴―스

◇同六時 童話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常識講座 貨幣의歷史 許然

◇同七時三〇分 法律講座 法律로본人身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孔明歌 四、山念佛 五、노래가락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三〇分 映畫이야기 激流 朴昌遠

◇同九時 歌謠 一、白鷗詞 二、黃鷄詞 金花香 李月色 大笒 金永俊

十一日(金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兩淸 二、굿거리 三、방아타령 四、漢江水打鈴 五、山念佛 六、靑春歌 奚琴 池龍九 洋琴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三時一五分 趣味講座 꿈과吉凶 金興濟

◇同六時 兒童劇 빗나는마음 二景「正直한少女」 ...韓貞媛 경숙(그의동무)...李今先 복순(同)...成瑞伸 인순(도깨비少女)...宋天興 선생...李範龍 其他學生一、二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基薰

◇同六時二五分 講話 歐洲大戰 柳光烈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金章煥

◇同八時 바이올린과피아노(레코―드演奏) 크로이체르·소나타 A長調四品四七 베―토―벤作曲 第一樂章아다지오、소스테누―토빌프레스토―第二樂章안단테·콘·바리아치오―니第三樂章프레스토 바이올린 게오르그쿨렌캄프 피아노 빌헬름·켐프

◇同八時三〇分 怪談 永遠의疑問? 白岳

◇同九時 報念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吳翡翠 愼淑

曆

十月十日(木) 舊九月經丙戌(小)十三日 己未·火·井·收

●寒露九日(舊月十一日)
●霜降廿四日(九月廿七日)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16)

張德祚 作 安夕影 畵

「무어 영감!」하는 사내의말에 눈을뜨라니 근심스러운 네 눈이 향화를 에워싸고 잇섯다. 빠삭히 갑자기 떠러진 향화의 용태는 벌서 몃시간을 혼수상태에 빠저잇서 급히 불니워온 의사가 런혜 몇대의 주사를 찔넛건만 종시 소생을 식히지 안앗다. 씻은듯이 가난한 집안꼴과 효과 업는 환자의 모양에 짜증을 내고 의사가 돌아간 후 벌서 해ㅅ발이 노피 솟앗슬때 향화의 입은 약간 움직기는듯하엿다.

「영감 영、감、님」아마 꿈속에서 영감을 맛낫슴이리라 정신이 좀 재일면 첨찾는 사람은 그의일홈이엿다.

「영감을 불너올가?」 흉은이 향화의 귀가까히 입을대이고 물엇슬때 죽은듯이 다시 눈을감은 계집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엿다. 사내가 문을열고 나간후 옥은 참지못하겟다는 듯이 이불속에 쓸어저 소리를내여 울엇다.

「부대 행복하게 잘사시요. 아들도 낫코 돈도 모흐고」

향화는 옥의손을 끌어다 사내의 손우에 노핫다. 무슨일로 이런지는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나는 죽은 후에도 혼이잇다면 당신네를 직히겟소」그는 이러케말하며 자기의 비장한 이 어조가 진정에서 울어나는것이 아님을 느끼엇다.

그러나 한없이 감격한 세사람은 모다 눈물을 뿌려 감사해 하엿다. 비스듬이 빗대파

사내는 엽번스무번 당사리다가 근처 사전가게의 전화를엇어 남대문통 장목전에 전화를 걸엇다.

영감은 곳 딸아나서주엇다. 그러나 흥은 다행함에 감격하엿스나 그의 압흘 걸어가는 자긔의 초라한모양이 부끄러웟다.

「좀더 너그럽게 다스리지 못햇든것이 지금생각하니 부끄럽소」

「황송하오이다」그들은 인왕산의 비탈을 기어올낫다.

옥이 대문을 열어주엇다. 항상 밝은 얼굴에 혈색고흔뺨을 가지고잇든 옥이도 오늘만은 근심에 궁은듯한 전신에발 남한 표정이란 그림자도 업시 오랴만에 옛주인을 대하는일도 무거웟다.

「앗、영감!」

향화는 겨우 이러케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송장가티 창백한 두뺨에 웃음가튼 그림자를 띄우며 움푹 들어간눈을 빗내고 잇섯다.

「모든것을 용서해줍시요、잘못 잘못햇습니다」

그모양이 어찌 가엽든지 사내도 눈물을 흘니고 여간일에동치안는 영감도 돌아 안저 눈을 딱갓다.

「내가 부끄럽다、젊은 사람을 꺼러 뭇슨그리 큰 죄 주겟니?」

「그 한마듸 그 한마듸를 들으면」 은혀에 기대여안젓든 영감까지 닥아안저 계집의손을잡으며

「그것은 념려말아 이 두사람의일은 나도힘것 돌볼러이니」하고 두사람을 돌아보며 「참 하늘가튼 사람이요、극락왕생할마음이요」하며 한숨을짓는다.

향화는 영감의 그 한숨소리에 뼈가 제리게 아팟다. 그것은 신의(信)업는 사내로하여고 민속에서 죽어가는 자긔의 장례(葬禮)를 잘해주마 하는말보담도 얼마나 갑업는 말일것이냐.

「정말 두번놈이 잘살아가겟수나」하고 향화는 이를 갈앗다. 「죽기까지 가면에서 못벗어나는냐. 아게집마이 가지고 잇슬이놈의허영 허영!」

그의 눈압헤는 남대문 집의 마나님이 보엿다.

그억센팔 부리부리한두눈、곳곳로 그집을 쪼저나올때 밋친듯이 차고 때리고 한든 그모양이 자기는 감히 맘으지 못할신상 저변놈이안기이 영원갓만해도 「나도神이냥죽어버려서는아된다」(神像)처럼 거룩하게 떠올낫다.

그는 어떡케라도 해서 죽기전에 여태까지 보이고잇든 가식에대하야 정직한말을 남겨 노코려하엿스나 입의 그럼 기력도 업시 쳐기이 점점흐려저가는귀에는 벌서부터 느께울고잇는옥의목 소리만이 점점 멀어저갓다 (곳)

素の味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美味 모든料理의風味를더함

便利 썰고끄려내는手苦를덜고

經濟 効力은絶大 少量으로足함

맛업다고 찡그린얼골 이한숫갈에 곳우슴이 나온다

新刊 新編家庭料理(百余頁)

希望한분은郵券七錢封入 左記에申込하시라

東京市京橋區寶町一丁目七番地 味の素本舖 鈴木商店出版部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近者山岳史話

終南山 (15)

南山의 烽燧臺

湖岩

南山은 本名이 木覓이니 古語로 마뫼 即 南山이란 뜻이라 하거니와 이밧게 引慶이라 終南이라 稱하기도 한다 南山은 저 뾰족하고 날카로운 北岳과는 反對로 線이 아주 부드럽다 北岳을 北國의 山이라고 한다면 南山은 南國의 山과 가리어놓은듯한 朗麗한 情調가 잇다고 할수 잇다 南山은 언제든지 紅塵에 헤매는 京城市民에게 깃붐과 慰安을 주지마는 四時中에도 南山의 特色은 新綠의 옷에 싸여 微笑를 띄우는 春夏期에 잇다 南山이 京城의 前面을 가로막아 비록 좁게 맨드럿스나 南山이 업섯드면 京城은 그 만큼 單調하고 凡俗하게 되엇슬것이다 市內에서 南山을 바라보는 것도 可하되 南山에 올나 南山을 보는 것도 조코 다시 南山에서 北漢을 背景으로한 全京城市를 바라보기는 더욱조타 보기 아름답고 올으기에 便하고 또 全京城을 한눈아래 거둘수 잇기는 南山이 情함 에도

냐 南山이 京城勝景에 盟主가되는것과 南山이 京城人에게 慰安을 주는것과 어느것이 더 큰가는 論할수 업거니와 南山이 저 北岳으로더부러 京城의 自然美를 構成한 要素의 하나이 되는 同時에 市民에게 깃븜과 情操를 주는 要素이 되는것을 알어야 하겟다 그러나 南山은 自然美로만 讚美할것이 아니라 넷날에잇서서는 諸方의 警報를 中央에 傳하는

國防上 重大한 任務를 맛터잇는 곳이엇다 그것은 곳南山우에 烽燧臺가 잇섯든 것이다 밤에드는 횃불을 燧라하고 낫에드는 烟氣를 烽이라 稱하는바 지금으로부터 四十年餘前인 甲午까지도 이 烽燧制가 每日實施되엇다 南山東쪽에서 起點을 지여 第一炬 第二炬 이러케 順次로 헤여 第五炬까지 잇섯는데 第一炬는 咸鏡、江原兩道를 擔하고 第二炬는 慶尙道를 擔하고 第三炬는 平安、黃海兩道의 陸路를 擔하고 第四炬는 平安、黃海兩道의 海路를 擔하고

第五炬 에는 全羅、忠淸兩道를 擔하엿다 烽燧는 平時에는 一炬이나 變이나면 二炬오 賊이 國境에 각가이오면 三炬오 接戰하게되면 四炬오 五炬를 드나니 炬를 增加할수록 變報의 急迫을 告함이다 이 南山烽燧臺는 太祖때부터 設置하엿스며 全朝鮮의 國境烽燧의 起點은 北은 慶興의 西水羅堡이며 南은 東萊多大浦의 應峰이며 西北은 江界滿浦의 餘屯峴이며 西는 義州의

古靜州 의 烟臺와 順天防踏鎭인바 이곳들이 燧를들면 그他烽燧臺에서도 順次로 燧를 드러 最終에 南山烽燧臺에까지 미치는 것이 元則이며 이 南山烽燧는 禁衛營에서 監督하게 되엇다 이 烽燧의 制가 勿論 今日의 發達된 無線電에는 미치지못하나 그當時에 잇서서는 퍽 組織的으로된 意味잇는 制度이다 五百年동안 京城市民들은 나제도 南山을 바라보고 해가떠러진뒤에도 또 南山의 烽燧를 바라보아

五臺所 에서 각기 一炬式을 들면 安心하엿고 그러치 안코면 크게 不安을 늣기게되엇다 만일 賊變이 잇슬때는 그事變과 그炬數를 알게된 것이다 그러데 그當時烽燧의 數는 全國을 通하야 約 六百二十餘個所에 達하엿다 한다 오늘날도 地方에 가면 흔이 烽燧臺의 터가 郡邑附近의 山峰우에 남아잇슴을 보게되는것이지만 이 全國烽燧의 最後로 總集中한곳이 이 南山이엇섯다

學藝

朝鮮現代詩의 研究

＝그 批評以前의 享受過程에서＝ (五)

李歇河

그러나 筆者는 여긔關하야서 大槪이러한생각을 가지고잇다。即우에 陳述한바와가티 詩란 明白히말할수업고 또 詩의 高下를 判斷하는基準으로서 자나 저울과가티 任意로

截斷 할수잇고 衡量할수 잇는 精確한尺度가 업는以上 우리는 結局 漠然하지만은 우리가 過去에잇서 참다운 關心을가지고 만은詩를읽어오는동안에 여러詩의 觀念과 또 조흔詩를 만이體驗하는동안에 어든 詩의水準을가지고 그範圍內에서 詩를말하고 詩를判斷할수바게업다고 생각한다。다시말하면 筆者는 이러한問題에 잇서 意見의 一致라는것은 처음부터 期待하지안는者이다。그러나 그反面 筆者는 또 우리가 過去에잇서가티詩에 關心을 가저왓고 또 우리의 詩에 關한 素養의 地盤이 갓다면 우리의意見이 어느程度까지는 一致되리라는것을 굿게밋는者이다 이러케 말하는것이 筆者가 筆者의 態度를鮮明히하기를 回避하거나 또는筆者自身이 過去에 잇서 만은詩를읽어왓고 詩에關하야 깁흔素養을 가젓다고 自任하는것이아니는것은 勿論이다。事實에잇서서 詩가 엇더한것인가를 가르치는것은우리가 詩를읽는동안에엇는 말以前의 우리의

體驗 이요 또우리가 詩를말할수잇고 判斷할수잇는것은 背後에 이러한共通한經驗을 前提로하고서야 비로소 可能하고 또 이러한 共通한經驗을 前提로하는限 어느程度까지 意見의一致를 期待할수잇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혀 詩에關心을 갓지아니하고 詩라는것을 넘지아니하는사람과 詩를말하여야할 極端의境遇를두고 생각하여도 明白할일이어니와 엇더한 詩나 詩人이 價値와地位가 決定되는 經路를두고 생각하여도 알수잇스리라고 생각한다。오날 英國詩壇에잇서 『엘리오트』라면이 미 움지기지못할 무거이를가진詩人이요 그의 『荒廢國』이라는詩가 英國의現代詩를代表하고 길이英詩史上에도 자최를남길만한詩라는데評家의意見이 大槪一致되엿다는것은 누구나다아는바이다 그러나 그들評家의意見이 이만한 一致에 일으기까지의途程은 決코 平범한것이 아니엿다。그들가운데는 不可解한詩라는 婉曲한

言辭 로 이詩를無視하려는사람도잇섯고 또 이는 率直히 怪異한 한試驗에지나지못하는것이라고 一蹴하여버린사람도 잇섯는것이다。그리고 또 그詩가 낭독만한 詩라는데 意見이 一致하는 評家사이에잇서서도 그詩가 엇더케 낭독만한詩냐 하는데잇서서는 만흔議論과 解釋이잇섯는것이다。그一例를들건대 『엘리오트』의 오날의 詩人으로서의 地位와 價値를 測定하는데 누구보다도 만한 評價를한것은『리차ー즈』라고 생각하는대 『리차ー즈』가 『荒廢國』에잇서 作者가 現代에 寄與한 큰功績의하나로『詩를 모든 信念에서 分離함으로서 理論上 으로만 可能한것을 具體的으로 實現하엿다』는것을 들엇슬때 『엘리오트』는 作者로서 또批評家로서 『리차ー즈』의이말은 全體 무엇을말하는것인지알수가 업다고 反駁하엿다。그러나 이러한事實에도 不拘하고『리차ー즈』의『엘리오트』에對한 批評은 英國詩壇에잇서서 恒常 指導的言論이되어왓고 『엘리오트』自身『리차ー즈』가 詩에對하야 가장깁픈

理解 를 가진사람이라는 것을 認定한다。이는 다시 우리詩壇에求하면 우리는 오날 우리詩壇에잇서 가장 놉피 評價하여야할詩人이 鄭芝鎔氏라는데 大槪意見이 一致되엿다。그러나 筆者는 아직무엇을 삼理由로 鄭芝鎔氏의詩를 놉피評價하여야하겟다는것을 明白히 말하는것을듯지못하엿다。그러고 또 或우리가 모여 서로그理由를 話題삼는다하여도 우리의意見이 一一히 一致되리라고는밋지아니한다。그럼에도不拘하고事實에잇서 우리의意見은 一致되엿고 또이一致가 正當한 一致라는것을 우리는 밋고잇다。말하자면 모다矛盾되는일이다。

箕子朝鮮說의 虛構에 對하야 (上)

張道斌

一、後朝鮮의 地理와國情

後朝鮮은 列國時代의 朝鮮이니 檀君時代의 朝鮮을 檀君朝鮮이라하고 列國時代의 朝鮮을 後朝鮮이라한것은 自來史家의 適當한名稱이다 곳列國時代의 朝鮮을 後朝鮮이라한것도 高麗史에 明記되야잇는것이다

後朝鮮은 平壤을 中心으로하야 잇슨國인데 그國境은 西는灤河요 北은淸川江下流地方 및鴨綠江下流地方으로 奉天地方까지오 東은 今의 陽德孟山地方으로 沃沮에 接하얏고 南은 黃海道를 包括하야 海에 至하얏나니 곳後朝鮮의 領土는 今의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의 濱海地、奉天以南、遼河上流의 西南으로 灤河의 東까지이엇다

後朝鮮은 列國時代에도 檀君王儉의子孫이 世世로 王이되야 平壤곳 王儉城에 잇섯고 各地方에는 多數한 小國들이 自治하야 聯邦이되야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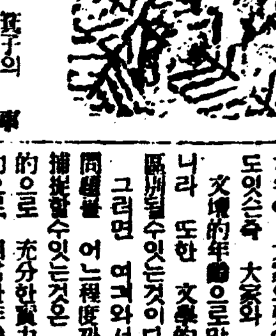
後朝鮮은 列國時代에잇서 文化가 가장 일즉 發達하얏고 그國境이中國과 連接하야 中國文化도 일즉輸入하얏다 이러하야 後朝鮮은 맛츰내 世界第一의 道德的文明國이되얏다

二、後朝鮮의王室

後朝鮮의 王室은檀君의子孫인王儉이것을 이미言及하얏다 곳檀君의子孫이 世世로 王이되야 平壤에잇서 後朝鮮大聯邦의 總王이되야 잇섯다 그것은 順川의王儉墓 平壤의 王儉山의쭉을 證明하야 王儉의 墓가 各處에잇는것을 보아 그證據가 明瞭하다

어가러 王儉이 世世로 王이되어 列國末葉까지 約千餘年을 [illegible]

하얏더니 맛츰내 平壤의 南인 今의 大同郡大同江面 土城里 箕否가 少侯下으로잇다가 箕否의 아들 箕準의때에 中國人衛滿이 箕準에게 降服하얏다가 도리혀 箕準을 攻逐하고 衛滿이 그都를 [illegible] 九月山의下인 莊莊京(信川郡山川面大德里)으로 移居하야 北扶餘王이 되얏다가 맛츰내 北으로 扶餘에 移居하야 [illegible] 莊莊京에 移都하얏다고 記錄하얏스나 實은 檀君은 晩年에 九月山에 隱하얏슬뿐이오 莊莊京에는 列國末世에 王儉이 衛滿의 亂을 避하야 移都한것이니 그는 高麗史를 考하건대 莊莊坪은 곳檀君의 移都한 莊莊京이라고 世傳하는데 文化(今의信川郡)東十餘里에 古城遺址이 傳하야 그는 檀君의 後孫이 移都한것이면 그古城遺址이 후世까지 傳해지 못하엿을것이니 檀君의 末後의 王儉이 移都한것이 高麗時代까지 傳해온것이다



三、箕子朝鮮說은 虛構

朝鮮古代의 歷史곳 高句麗、百濟、新羅의史에는 箕子의 事實이 記錄되지아니한것을 보면 朝鮮古史에는 箕子說이 업는것이 確實하다 朝鮮에 中世以後곳 高麗時代부터 箕子說이 생겻다 그는 高麗以來로 漢學이 盛行하야 中國崇拜熱이 高潮함을 따라서 그들 漢學者輩가 箕子說을 虛構하야 지금까지 온것이 分明하다 中國歷史에 箕子가 朝鮮에 入하얏다는것은 일즉부터 잇스나 그러나 中國人은 그러한 虛構를 잘하는사람들이라 當初부터 그것을 信用할價値는 업다 例컨대 中國歷史에 日本人을 秦伯의 子孫이라고 하얏스나 그는 可笑한 虛言인것은 누구던지 알것이다 그와同樣으로 箕子가 朝鮮에와서 箕子朝鮮이 되얏다는것은 可笑한 虛言이다

(寫眞은 高麗古墓瓦)

一凋落一

新人論

─그文學的本質에關하야─ (1)

李源朝

新人이라는것이 대체 무어인가하는것을 論議의 中心으로삼키위해서는 먼저 大家 或은 旣成文人이라는것은 무어인가하는 것을 究明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大家와 新人이라는것을 區別하는데잇서서는 그境界가 매우 稀微한것이다。假令現文壇에잇서서 누구를 大家이라하고 누구를 新人이라고 한다면 그

境 界는 어듸잇스며 그 條件은 무엇이냐할때 누구이라도 短刀一斷하는듯한明確한對答은 할수업슬것이다。그러나 現行하는 語例로보아서 新人이라는말과 大家라는말은 截然히區別되여서 만히 對蹠的인 意味로 使用되면서잇고 또한 이러한意味로使用되는 新人이라는 말은 近來 우리文壇에서 幾多의紛擾한問題를 惹起한것도 事實임으로 여긔에서 新人과 大家라는것의 根本的槪念을 闡明해 보는것도 그다지 無意味하지는 안흘것이다。

近來 우리文壇에서 新人에 關해 이러난問題는 첫재 新人濫造說과 文壇肅淸論일것이다。果然 그네들의 하는말과가티『쩌ー날리즘』은 無節制하게 新人을 濫造해내엿스며 또한 이濫造된 新人들은 無反省、沒廉恥하게 文壇秩序를 紊亂하엿는가 안하엿는가는 내알지도못하거니와 또한 이小論에서는 問題의核心이되지도안는것이다。그러나 여긔에서우리는 新人이란 엇더한것이라는 解明의

端 緖를 비로소 잡을수 잇는것이니 이것은 新人을濫造하엿다던지 또는 濫造된新人이 文壇秩序를 紊亂하엿다는 事實에서가아니고 이러한事實이야 잇섯던 업섯던 一部에서 新人濫造를 攻擊하고 文

히 新人이 무어이라는것을 性格化하지안엇는가하는것이다。다시말하면 新人濫造이나 文壇肅淸論은 그表現된 結果는 무엇이엇던지간에 그所致의 意圖는 『왜 突然히 되지도못한 新人을出世식히느냐』『제까짓게 다 무엇이라고 겁방지게』 하는 一種의 醫批的倫理論(?) 인것이니 이러한말은 비록大家나 旣成文人의입에서 나오지안엇다고하드래도 이것은 實로 大家를 擁護하고 權威에 阿附하는 傾向이라고 아니할수 업슬것이다。그럼으로 新人과 大家의葛藤은 『權威』라는것을 싸고도는 抗爭이라고할수잇는것이다。大家라는것은 한개의 權威를 가진 것이라면 新人은 그것을 가지지못한것이다。그래서 이問題가 權威라는것을 싸고도는限에서 問題의提出은 한상 文壇的으로되는 것이다 따라서

文 壇의秩序이니 文壇의 無政府狀態이니하는等의 論議은 全部 新人에게 그로 그責任을 돌니는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文壇的問題로서의 大家와 新人의 葛藤이 맛치中世의 身分制와가티 한개의 整然된 秩序에 關한 抗爭이라면 大家와 新人의 區別은 文壇的年齡으로 따질수잇슬것이다 그러나 事實에잇서서는 그러치안흔것이니 所謂文壇少年이 大家라는것도 잇고 出世한지 不過五六年에 大家의列에 參與하는수도잇스니 大家와 新人의 區別은 文壇的年齡으로만 따질것이아니라 또한 文學的 問題로서도 區別될수잇는것이다。

그러면 여긔와서 우리가 이問題를 어느程度까지 明瞭하게 把握할수잇는것은 大家란 文學的으로 充分한實力이잇고 文壇的으로 相當한年齡을 가진것이라면 後者는 이 두가지條件이 다 不備한것인때문에 前者는 地位와 權威가잇고 後者는 그것이업는것이다。그럼으로 大家란 文學的으로 되는것이면서 거긔에 附隨되는 權威라는것은 文壇的으로 行世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一般的인 社會現象을 본다면 그것은 어느意味에잇서서 恒常權威의象成過程을 밟고잇는것이다。

財政的危機를傳하는 『틀게네프』圖書館

十月革命때에 巴里에定住한 露西亞人은 哈爾濱보다도 그數가 훨신만코 文化機關도 哈爾濱 보다 完備해잇는것은 勿論이나 그중에도 巴里의 『틀게네프』圖書館은 가장 注目한 것으로서 이『틀게네프』圖書館의 藏書는 十萬卷이라고하며 巴里在留의 露西亞人의 文化教養에 巨大한 役割을하여오는것이다。『틀게네프』圖書館은 그일홈이말하는바와가티 露西亞가 나흔文豪『이반·틀게네프』에 依해서 創立된것인데 數年前에 그創立五十周年記念祭를 行하엿슬도잇다。『틀게네프』는 이圖書館을 사랑하여서 財政的援助를잇기지안코 또 그와親交가잇든『포리나·위ー알르·카르시아』도 이圖書館建設때문에『콘세르트』를開催한 일까지잇섯다。이 圖書館의 閱覽室에는 큰肖像畫가 걸녀잇고 彫刻家『아로종』의作인 胸像이安置되어잇다。이『틀게네프』圖書館에는 有名한『체호프』의 親戚이 되다고하는 『류ー드미라·체호와』가 三十年동안이나 繼續하야 勤務하고잇서서 在巴里의 露人에게는 매우親하게되던 圖書館이엇스나 最近傳하는바에依하면 財政的으로 困難해서 新刊書購入도 近年에는 顯著히 減少해지며 잇다고한다

稀代의化石病

『시아틀發聯合郵信』『노나、크로이스』孃은『시아틀』에서도 評判의美人이엿으나 今春身體의 運動이 不自由하게되엿슴으로 兩親은醫師의 診察을바든結果 彼女의皮膚筋肉神經等은 漸漸硬化角質化되면서 잇는것을 發見한 醫師는 이것은 무서운化石病인것을宣言하엿다 이말을드른 모든사람은 悲痛의 極한 그兩親은『다코마』市名醫 우이라ー도 博士의게로 대리고가서 어더케하던지 곳처달라고 熱心히 懇願햇다。『우이라ー도』博士는 元來化石病의 治療의 至難한것은 잘알고잇는터이나 될수잇는대로 곳처보겟다고하고 以來博士는 鑛物質의 全然含有되지안흔 食餌를주어經過를 보게되엿는데 最近意外에도 彼女의 身體의 硬化가낫게된것이 發見되엿다、여긔에 힘을어든 博士는 必히完治될것을 自身하야 食餌의 硏究를 繼續하고잇는중이다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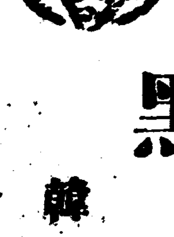
▲時中 第二號 京城府三淸洞山二番ノ五 時中會發行 定價五錢

▲朝鮮銀行統計月報 六月分 京城府西大門通三丁目一〇 朝鮮銀行發行 定價五十錢

▲復活運動 創刊號 京城府奬忠洞三ー 復活社發行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定價三錢

黑風 【149】

韓龍雲 作 金熊超 畫



광동(廣東) 5

왕한이 경찰서에 부들녀 갓든일을 뭇고서 누구보다도 놀난것은 창순이엇다 창순은 그 기별을 듯자마자 왕한의 여관으로 달녀갓다

환영회로부터 도라와서 밤이나 취한 술기운에 큰뜻이 움직이면서도 당시 혁명운동이유치하고 초창한중에 정부의 탄압이 너무 심하야서 운동의 압길에 만한 끈너이 잇슬것을 생각할때에 다소의 염려를 가지게되야서 장한뜻과 가벼운 번민이 가튼 가슴에서 움직이고잇든 왕한은 촛불이 차저주는 창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 바다에 거친 물결을 이르킨듯하든 모든 생각은 갑작이명랑하고 고요하야지면서 마음기름의 운전하는 고동이 바꾸어되얏다

『어제스밤에 선생님이 차에서 나리신뒤에 얼마 아니되야서 형사에게 부들려가섯더란 말슴을 드럿는데 그게 사실이야요?』

하는 창순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왕한을 본다

『예 그런일이 잇섯습니다』

하는 왕한은 우스면서 대답하얏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섯서요? 신체에는 아모런 고통도 업섯서요?』

하는 창순은 다시금 걱정스런빛을 심각하게 띄엇다

『놀나기야 그만일에 놀나겟습니까 그러한일은언제든지 각오하고 잇는일이니까요 신체에는 아모일도 업섯습니다 조금도 염녀마서요 그런일이다 일하는사람에게 시련(試鍊)이 되는것이겟지요』

『그러치만 저는 그기별을 듯고서 어떠케 놀낫는지요 선생님이 그만일에 정신상으로는 별로 놀나시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도요、또신체에 어떠한일이나 업나하고요 그래서 한다름에 뛰어왓지요』

하는 창순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기운을 씻으면서 갓붓한 숨결을 가볍게 물으고 두손으로 왕한의손을 어르만저줄듯이、위로하는 마음을 의어지못하는듯 하얏다 왕한은 자기의 [illegible] 상이 업다는것을 거듭 말하고 창순의 위로하는뜻을 깁히 사례하얏다

창순은 왕한을 위하야 조그마한 만찬을 준비하얏다는 말을하고 왕한에게 가티가기를청하얏다

한편구석의 귀취한곳에서는 대혁명의 옹모가 숨어잇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탄압하랴는 칼그림자가 어지러워서 실로입이마한 광동의거리、깨끗하면서도 다소 황량한 가을하늘의 엷은 달그림자 아래로 나란히 거러가는 왕한과 창순 때로는 아름다운 붉은입설로 천하대사를 말하고 때로는 허허장부의 가슴에서 적은새의 그것과가튼 따듯한 사랑의 정열이 떠오르는 그들은 사랑을 속삭일때에는 원세상이 봄의 보금자리와도 가텃지마는 혁명을 말할때에는 모든것이 가을의 살풍경과도 가렷다

어깨를 겨주어서 나란히 가면서 무슨 말인지 끄님 업시 속삭이는 그들의 발자최는 느루나무및 조그마한 우물을 오른편으로 끼고 타원형으로 굽은길을 도라가다가 그길의 서편으로 꺽기는 적은 언덕아래에 정남향으로 닷처잇는적은 사회문압헤가서 멈주엇다

『이것이 저의 집이랍니다』

하는 창순은 손을 드러서업헤집을 가리치면서

『이것은 저의옵바의집인대 저의옵바가 남은터에다 삼간집을 지어서 저의집이라고 지목하야서 조용히 글이나보라고 한것이야요 사람의 생활은 우수운것이지오 이런생활도 잇답니다』

하는 창순은 왕한을 도라보더니 다시 문을열면서 드려가기를 청한다

왕한은 사립문에 드러서자 집을 둘너보고서

『조용하고 정쇄하야서、조습니다 사람의 생활은 이러한것이 조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다를는지 모르지마는 광하천만간이 무슨 소용이 잇습니까 우리는 넓더한 생활보다 만한 힘도 업지마는 그보다도 성격상 이러한생활을 조아합니다』

하야 창순의뜻을 위로하는듯 하얏다

世界的회충약 마구닌錠 마구닌제리

保健은 蛔虫驅除부터

小兒健康의大敵蛔虫은腹中에寄生하야榮養分을奪取하야發育을阻害하며運動不活潑腦力減退뿐아니라延하야는生命에까지威脅을주며또는何時侵入되는지모름으로每月蛔虫驅除日을定하고服用케함이必要합니다

蛔虫藥은四大特長을가진마구닌을먹이시요

1、마구닌은산도닌과가튼副作用이絶無

2、마구닌은下劑併用이不必要

3、마구닌은산도닌가티排虫時不快感이업시不知不識間에驅虫됨

4、마구닌은排虫率이優秀함

마구닌錠 ○.三○ ○.五五

마구닌제리 ○.二○ ○.八八

京城西小門町 藤澤友吉京城支店

腦疲勞を恢復する秋だ

第一에……不眠을

第二에……頭重을

第三에……憂鬱을

이때가마침 노크아웃트하는 絶好의療養시ー즌이올시다。

健腦丸의綜合効果

單純한 頭痛藥과달너서 一劑로서鎭靜、安眠、通便、消化의綜合効力을나타내며

무거운 머리가씩가 버워지며 不快하던 便秘가 爽快하게通하야지며 不眠、頭痛의 苦悶을이지며 흐릿터분하던頭腦가明朗하게되는

健腦丸은그以上에腦의疲勞消耗를補充하며、血行을바로하게하야頭腦를明快健全케、記憶力思考力을 增進식힙니다。

健腦丸 (건뇌환)

適應症 頭痛、逆上、便秘、不眠、耳鳴、眩暈、健忘、腦充血、히스테리、神經衰弱

定價五十錢부터 各藥店에잇슴

平南道의今年農況 四十年來의大豐作
一部山間地帶를除外하고는 田畓間三四割增收豫想

【平壤】대경랄변이라 평남지방에는 풍작을 보지못하는 전해(天災)를비터 산간군부(山間郡府)를 제외한 평탄부전폭에서는 시회변풍한가운데서 경과하여왓거니와 금년의 농황은 실로사십여년이래의 처음보는 대풍으로 벼(稻)는 수도(水稻) 륙도(陸稻)를 막론하고 삼할이상의 증수이며 조(粟)콩(大豆)팟(小豆)목화(棉花)등전반 농작물도삼할이상 사할까지의 대증수를보게되여 지금까지 보지못하든풍성풍한 광경을보히고잇서 농촌도처에는 환락의 노래를 드를수잇다고한다

借地人讓步로 地料紛糾段落

【平壤】평양부내 긔림리(箕林里) 칠십륙번지 홍경순(洪敬淳)외이십일호의 가옥부지가 전소유자에게서이동된후 지료(地料)사건으로 싸이든것을 일약이십전으로 올린데서 긔인하여 말성이 일어나서 일반의주목을 끄으럿고 차지인들은 지료 불납동맹(不納同盟)을조직하여 대항중이든바 지주측에서는 우선린(禹善麟)을 지주 대표로 하여 지료불불(地料不拂)을 리유로 평양지방법원에 토지명도(土地明渡)소송을 제긔하여 지난팔일에 제일회 구두변론을 개시할예정이엇섯스나 차지인측에서는차지법이 실시가업는 현하의 조선에서는물론 차지인의 패소로 도라갈것을 륙감하고 지주측에 항하여 이십전의 지료이상을 승인한후 사일부터 지료를 지불하고 잇는 올린면서 고액의 지료를지불하지안흘수 업는 차지인들의 정경이 실로 가긍한 상태에 잇다한다

橫暴無雙한士兵 同胞家屋을燒却
十四道溝要房子方面에서는 三個里에銃殺로脅迫

【咸興】십삼도구(十三道溝)도천리(十三道溝桃泉里)이주동포 조락에서 금품제공을 강요하고잇든 토병천흥(天興)의 일파라고 칭하는십여명은 동리 구장이 십삼도구시가지(十三道溝市街地)로 피난하엿다는것을 분개히녀여 그북수수단으로 륙일오후여덟시경동포 위수일(魏秀鎰)외 이호에방화하여 소각시킨후 동포 원긔영(元基榮)외 오명을 수시간무수라다하여 모다빈사의 중상을입힌후에 칠일아츰 십사도구요방자(十四道溝要房子)방면으로도망하엿다하며 또 동토병단의바일삼십명은 의연강탈을 감행하는데칠일아츰 일곱시경 십오도구접후리(十五道溝接厚里) 구장 채창록(蔡昌祿)동구여운작리(如雲昨里)진룡창(陳龍昌) 동대동리(大洞里)구장 리창섭(李昌燮)의 삼명에 대하여 먼저 요구하엿든 금품을오는음력구일 십일일까지 십삼도구도천리(十三道溝桃泉里)에 지참치안흐면 즉시 삼개리 전부를 소각하고 주민전체를 총살하겟다고 협박하엿다는데 이른하여 금품을 제공할것업고 또한 제공못하면 장차다쳐올 소름이끼칠만한 토병들의 폭행을 예상하고 전전긍긍한중에잇스며 일부는 벌서피난준비까지하는 중이라한다

東海川堤防問題 急轉直下로解決
洪氏의堤防撤毀로

【咸興】작년사월경부터 말성이 만허오든 신흥 동덕천(東德川)우안제방 방축문제는 신흥동민과 홍파일(洪巴一)과의 대립항쟁이 격심하여 함남도청에서도 드듸어홍파일측에 대하여 량차나 제방을 철회하라고 엄명하엿든바 홍파일(洪巴一) 측에서 강경히 반대하여 필경에는 불복신립(不服申立)까지 제출하여 문제의 추이가 극히 주목되든바 지난이일부로 홍파일측에서 불연무조건철회로 응락하여 왓슴으로 오래 주목을끌든 이사건도 급전직하하여 무사히 해결되엿세음어라고한다

無産兒教育機關 永信學院閉鎖令
認可업는것이口實로

【東倉浦】황해도안악군안곡면룡곡리 영신학원은 봉곡, 동양제중삼개리의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 소화칠년도 사월에 봉곡리예수교회에서 무산아동을 위하야 설립개원하고 현금까지 사개성상을 근근히 빈약한 교우들의 힘으로 경영하야 문맹의자제들을 만히길러가며 변령초과로 보통학교에 드러가지못하고 배우고저하나 배울곳이 업서배회하는자제들도 이학원에서배우게하자는 구든생각에서 장려를 빌고잇든중 갑작이 인가업스니 중지하라는당국의 명령이 지난삼일에나리자 지금것 교편을들고 일편으로는 농업하고 일편으로는 팔신하야 아동을 가라처오든 오필재(吳弼在)선생은 학원당국제씨들과 상의한후 지난사일에 팔신하야아동들과 눈물을흘리면서 서로헤여젓다고한다

오케-專屬歌手 實演의밤開催
元山支局後援

【元山】조선의 레코-드계를 [illegible]하여 가장 [illegible]한 레코-드를 가젓스며 조선악단에서 가장 패특의 열정적인 인긔를 독점하여가지고 레코-드를 통하여 고은 멜로듸로 일반을 무아삼매(無我三昧)에 황홀케하는 노래의 전당인 오케-레코-드회사 전속가수 삼십여명은 남조선의연주여행을 맛추고 오는 십월 이십일 이십이 밤은 오후[illegible] 반부터 원산[illegible](白林[illegible])주최와 본보원산지국후원하에 원산관(元山館)에서 실연의밤을 개최키로되엇는데 조선에서 굴지하는 오케의전속가수들인만큼 그곡목에잇서서도예전에보지못하던 종목으로서 레뷰 활극 촌극 딴쓰 무용 류행가 재즈등 원산에서는 처음보는 연주회일것으로 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宿所다툼이原因 "거지"끼리殺人劇
動機는不具者에對한義憤

【海州】피곤한몸을 쉬일곳이업서서 밤마다 안식처를 이동하고잇는 고달픈 걸인(乞人)들이 정미소(精米所)허ㅅ간에서 하로밤을 밝히다가 잠짜리닷툼으로 마침내 살인의참극을 일으키고 네명의 걸인이 「상해치사죄」로 철창신세를 지게된 우숨수업는 비극이 잇다

지난 륙일 오전여덜시경 옹진군(甕津)출생으로 주소부정의 곽상호(郭相浩)(三〇)외두명의 걸인은 하로의 피곤한몸을 쉬이고저 장연군 후남면 부평리(長淵郡後南面釜坪里) 대평동정미소(大平同精米所)허ㅅ간에서 자든중 그중의(姓名住所不明)한명은 불구자인 박창식(朴昌植)과 「잠자리」를다투다가 집팡이로 전긔 박(朴)을 무수란타하자 동숙하든 네명의 걸인은 불구자인 동료가 구타당하는것을 보고 분개한나머지 타오르는 의분(義憤)을 참지못하야 작당하야 가해자인 걸인을 구타하얏는데 이로인하야 그는 동일절명되엿다 이사실을 접한 소관장연서(長淵署)에서는 가해자인 전긔 곽상호(郭相浩)(三〇)와 그의장남 순영(順永)(二〇) 해주(海州)출생의 리하영(李夏永)(二〇)과 강훈(姜薰)(三[illegible])등 네명을검거하야 동서에인치하고 상해치사죄로 엄중한 취조를 진행중이라한다

安東驛頭에서 男子一名自殺

【安東】륙일 오후아홉시삼분경봉안동역에 도착하는제오열차를 이동효(伊東?)긔관수가 운전하여오든중 안동역으로부터 약백미돌되는 지점에서장년자한명을 무참하게 [illegible]

不完成한精米所 擴張反對猛運動
衛生、交通、失火等危險잇다고 住民大會對策講究

【鎭南浦】진남포비석리(碑石里)화성정미소(和盛精米所)는 본시주택이 조밀한곳에서십오마력을 사용할때에도 위생상으로나 교통상으로 만흔비난이 잇서오든 바 이즈음 정미소를 확장하면서 삼십마력을 사용케됨으로부터 근백여주민들은 막대한 곤난을 밧게됨으로 수차나 진남포경찰서에 진정하여오든바 지난칠일밤에 다시주민대회를 개최하고 좌긔사항을 결의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엿다는데 어떠케나 해결될는지 주목된다고한다

◇決議事項

一、和盛精米所는 工場의 設備가 甚히 不完全하고 機械가 老朽하여 [illegible] 附近住民의 衛生上 [illegible]뿐아니라 火災의 [illegible] 設備가업서 夜間安眠妨害가 되는것

二、和盛精米所通路는 狹隘하여 車道로 不適當함으로 車馬交通이 頻繁한時는 一般住民의通行을 妨害할뿐아니라 小兒及通學 兒童의通行上 危險한것

豆大의雨雹으로 農作物被害不少
安峽龍遠坪地方에서

【伊川】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룡원평(安峽面龍遠坪)에는 금번 예상이외의 풍작으로서 방금 추수기에잇든 일반 농민들은 참으로 깃븜을 마지안코잇던바 지난삼일에 콩알만한 우박으로인하야 룡원평의 농작물은 전멸상태에 잇는바 안협면에서는 방금피해면을 조사중이라 한다

地方人事

◆崔榮安二氏(新大田邑長)退職人事次大田支局來訪
◆李崗範氏(白川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社白川支局來訪
◆[illegible]氏(三一醫院長)[illegible]人事次本報[illegible]支局來訪

保聖女校學生會主催 音樂大會를開催
今月十二日夜에

【宣川】평북선천보성녀학교학생회(宣川保聖女學校學生會)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삼지국후원으로 오는십이일 오후칠시반부터 당지선천회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인 피아니스트 해롤드군과 미국인 성악가 뭇즈양을 초빙하여 음악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은 당야의 성황을 예긔하고잇다한다

日時 十二日午後七時半
場所 宣川會館
入場料 學生十錢 普通二十錢

【安岳】안악군신모면룡리(安岳郡新茅面栗里)소재 소화광업회사(昭和鑛業會社)경영의 광산제칠호항(第七號坑)내에서 「다이나마이트」폭파작업을하고잇든 동면 김재연(金在淵)(二七)과 김주경(金周經)(二八)량명은 항내에들어가서 「다이나마이트」의도화선에점화하고 급히항외로 달려나온도중 미처나오기전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여 모다치료이주일이상을요할 중상을당하엿다고한다

爆藥爆發로 人夫二名重傷

【咸興】지난달 삼십일 오후세

崇實專門校創立
三十八週年記念式

【平壤】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에서는금번창립삼십팔주년그념일에 해당하므로 성대한 그념식을 거행하기로 되엿다 또한 창립그념식을 필한후 모교본관강당(本館講堂)에서 숭실교우회(崇實校友會)를 개최키로 되엿다한다

隊織競技大會
日新學校主催로

【宣川】선천군심천면 사립일신학교(宣川郡深川面私立日新學校)에서는 오는 이십오일 창립삼십주년긔념일을 리용하야 서조선입직경기대회(西朝鮮隊織競技大會)와 교내운동회(校內運動會)를 본보선천지국과 중앙、동아、동지국후원으로 개최하기로하엿다는데 당일입밧의 다수 참가를 희망하며 경기규정은 다음과갓다한다

規定
一、隊織數 三人
一、隊織其他材料機具各自持參
一、其他仔細事項은本校問議할事

賞品
一、一等 小牛一頭一組
一、二等 高級除草機一臺式一組
一、三等 高級마니라호-구一本式一組
一、四等 高級鐮一本式二組
其他副賞
一、大會日時 十月二十五日
一、申請期日 十月二十日限
一、申請場所 宣川郡深川面日新學校

朝共青盟關係 李金福女被告
十一日分離公判

【咸興】조선공산청년동맹(朝鮮共青[illegible])사건 피고륙[illegible] 자피고 리금복(李金福)은 그간제일회 공판에 심중으로 출정치못하야 분리심리하기로 되엿든바 오는십일일 오전구시부터 함흥지방법원에서 미전(米田)판사주심, 진(陳)속검사의 간여와 제유록 변호사의 열석으로 개정하게되엿다한다

東興新坡間 一等道路竣功

【咸興】총공비 칠만원을 던저 작년도부터 긔공한 신갈파(新乫坡)동흥(東興)간의 이동도로는 수일전에 완성되엿는데 해도로는 국경산업개발에 지대한영향을끼칠것으로 일반의 요망이 극히 다대하다고한다

秋期聯合運動

【鎭海】지난 륙일오전팔시부터 진해군운동장(海軍運動場)에서 진해의 각공립학교 련합추기운동회를 개최케되엿는대 당일 참가한 학교는 진해공립보통학교등 사학교로 대성황을 이루엇다한다

淮陽에初氷

【淮陽】강원도회양군 지방에는 지난 륙일 저녁부터 비가 나리더니 급작이 얼기가 시작하야서 첫얼음이 아츰에는 물판에 고여잇든 물이 어릿는데 예년에 비하면 십여일이나 빠르다하며 미숙한 두태에는 피해가 만타한다

異次頓의死 【8】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공주의 손ㅅ가락에 껴던 금다란 금가락지—그것은 처녀들의 욕심을 움지기지아니할수업섯다. 다들 지금 공주의 가슴에 생각하고잇는 깃봄이 무엇일까 하고 고개를 가웃거리고 생각하엿다.

그중에 한 처녀가、

「소인이 알아처보겟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낫다.

「어듸?」

하고 공주는 그 처녀를 바라보앗다.

「공주마마께옵서는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시오니 금번에 풍년이 들어서 오곡백과가 잘 익어서 오늘 한가윗날 만민이 햇살밥 오려송편、신청주에 배불리 먹고 마시고 질거하오니 마마께오서는 그것이 고작 큰 깃봄이신줄로 아옵니다」하엿다.

공주는 구름가튼 머리를 서너번 흔들며、

「그것이 큰 깃봄이지마는 그것은 상감마마의 깃봄이시오 나가튼 어린 계집에의 깃븜은아니지」

하고 도로혀 시무룩하엿다. 말하던 처녀는 뻘주 한잔을 바다마시고 무안하야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안젓다.

다른 처녀 하나가、

「그러면 소인이 공주마마 크신 깃봄을 알아맛처보겟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낫다.

「어듸?」

하고 공주는 눈을 들어 그처녀를 보셧다.

「공주님은 효성이 지극하시오니 상감마마께오서 오래 미령하시던 병환이 나으시섯스니 그것이 마마의 가장 크신 깃븜인가 하옵니다」

하고 이번에야 그 금가락지가 제것이 되엇다 하는듯이 공주의 손에 들린 누런 금가락지를보앗다.

공주는

「그것도 큰 깃븜이지마는」

하고 또 고개를 서너번 흔들엇다. 그 처녀는 도숭한 잔을 바다 마시고 물러나와 자리에 안젓다.

「소인이 이야말로 뚝 바로 알아마치겟습니다」

하고 또 한 처녀가 일어낫다.

「어듸?」

하고 공주가 그 처녀를 바라보앗다.

「오늘 저녁 상상기에 알메(閼山)、무도(牟果)、밝올메(明活山)편이 이기겟스니 이 세 마을은 공주님 편이라 그것이 가장 크신 깃븜이신가 하옵니다」

하엿다.

공주는 이번에는 고개도 흔들지아니하고 술잔만 들어내어밀엇다. 말하던 처녀는 벌주를 바다먹고 무안하야 제 자리에 물러와 안젓다.

공주는 화가 나는드시 약간 미간을 찌프리며、

「다 가리 나와 가리 나이어숫비슷한 아가씨들로서 그러케도 내속을 못 알아줄까。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가 천리만리라더니 과연 그러한가보고나 어듸 가장 지혜만타는 이마로ㅅ집 달님이나 내 속에잇는 깃븜을 알아줄까 하고 아까부터 금가락지에는 눈도 거들떠보지 안는달님을 바라보며

「어듸、달님! 우리다 가티 형제와 가티 친한 동무들중에서도 가장 친한 동무 달님이 마치 아바마마께오서 이마로이손을 가장 밋고 사랑하시는 모양으로 이 평양 공주가 가장 밋고 사랑하는 달님。지금 내 가슴ㅅ 속에 마치 금산 산제ㅅ불가티 타 오르고 동해 바다 물ㅅ결 가티 늠실 거리는 깃븜— 너머 큰 깃븜은 아프도록 괴로워— 이 깃븜을 알아맛칠까。달님마자 이 깃븜을 못 알아맛치면 나는 어찌할꼬? 만일 달님이 내 깃븜을 알아맛처준다면 내 깃븜은 열갑절이나 더 클것을。또 내 깃븜이 곳 달님의 깃븜도 되려니。어듸 달님。이 가락지를 달님의 그 석잠자고난 누에가튼 손가락에 끼어주게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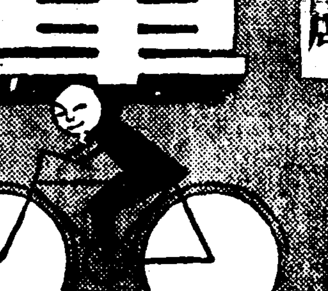
하고 사랑에 넘치는 표정을 한다. 다른 처녀들은 모도 달님이 공주에게서 밧는 은총을 부러워하야 달님을 바라보앗다.

달님은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주의 압에 나아가 한번 무릅과 팔을 땅에집어 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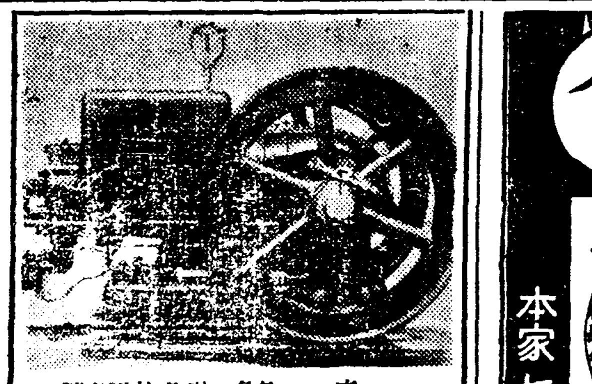
「놉흐신 공주마마께오서 미미한 버리지와 갓흔이몸을 그처럼 밋어주시오니 황공무지하옵니다。그러면 소인이 헤아리는대로 아뢰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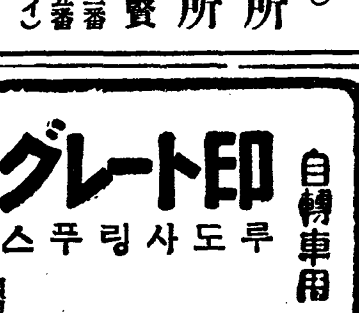
하고 잠깐 말을 끈혓다.

癩 [illegible]個月에 낫는 名藥 무료로返 金치 임게약함 釜山府草梁町 同春藥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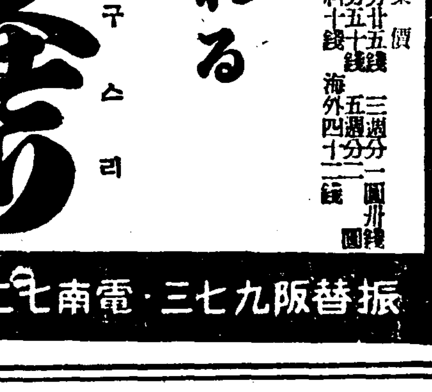
富國
東工社の自轉車
眞の自力更生 東洋一の大工場 商工大臣の助成なし
全廻轉部に三大特許を有す 鋼鐵製・防水防塵裝置完備
全鮮代理店
京城府黃金町 高居瀧三郎商店

東京自轉車工業社

●感嘆!!感嘆!!정말頭痛에써조흔 ノーシン(노-신)이다●


京光式
汲揚機 精米機 發動機 鑛山機 製粉機
各種ゴムロール
各種ゴムベルト
スエヒロ米撰機
引拔磨シャフト
各種型自動メタル
船來SKFベアリング
國產SKIベアリング
玄米工場設計請負一式
精米所
京城府岡崎町七一 (岡崎町電車停留所前)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賢
電話長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電略(ケ)又ハ(ケイ)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스푸링사도루
類似粗惡品이多함으로商標에注意

輕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슴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今も 昔も
效能で賣れる
七ふく(시찌후꾸) ひえぐすり(히에구스리)
效能 上氣를引下하고便通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효능으로 팔이는며
藥價 半週分廿五錢 一週分五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送料十錢 海外四十二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阪九七三・電南七二九

朝鮮博覽會受賞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試驗證明
(型錄進呈)

新案特許 優良機械品一切 其他新發明品
三用ザクリ
廉價大賣出
特約店及地方駐在外交員大募集
發明品專門製作發賣元
朝鮮工產社
咸興府昭和町二丁目七八

リグレー (리그레)
純粹眞正한추잉껌

리그레-추잉껌을 자조 씹으시면입안도니도늘깨끗하고고와집니다
口氣를清爽케하고니를회고強健케하며神經을和暢케하고消化를도읍니다
每食後에잇지마시도록
包紙에쓰인리그레—의 이름을注意…世界各地에서익숙이아는오래된 歷史를가지고잇습니다
IP—39

對伊經濟制裁 (一)
範圍와 伊國의 耐久力

對伊經濟制裁에 全聯盟國이 參加할 影響으로서 今九日의 總會에서 採擇이 確實視되는터이라는데 創立以來 空文인 聯盟規約 十六條가 具現되어 對伊經濟 金融關係 一切가 斷絶될것인가? 자못 注目되는바 이제 이것이 正式으로 決定된다는 前提下에서 對伊經濟制裁의 範圍와 伊國의 耐久力이 어떠할가를 살펴보면 大體 如左하다.

對伊制裁에는 經濟制裁와 軍事制裁의 두가지가 잇는데 軍事制裁를 한다면 世界的動亂을 惹起할 念慮가 잇스므로 지금에는 軍事的制裁는 생각할수업고 對伊制裁는 結局 經濟制裁일것으로 그 經濟制裁方法으로서 어떠한것이 잇느냐 하면

一、「스에즈」運河를 閉鎖할것

二、聯盟國이 伊太利에 對하야 金融上 商業上 關係를 斷絶할것

三、聯盟國은 伊太利를 「엣이오피아」와 經濟的으로 孤立케할것

四、「엣디오피아」에는 援助할것 「엣디오피아」에는 現在 武器輸出을 禁止하고잇스나 이것을 解하고 金融上의 援助를 行하라는 가르침이 그 一이다.

右中 第一의 「스에즈」運河閉鎖는 伊太利의 東阿遠征軍을 孤立케함에 대단히 有效한데 그 結果 伊太利와 英佛海軍間의 衝突이 생기게 될것임으로 이 運河閉鎖는 實行될지 모르는터이오 그다음의 三項目에 對하여보면 첫재로 金融 及 商工上制裁는 如左한 方法이 잇서 이미 一部는 行하고잇다.

一、伊太利에 融資치 안는다 이미 數個月前부터 行하고 잇고 英國에서는 對伊「크레딧트」를 回收하고잇다.

一、伊太利에 各種商品, 特히 石油, 石炭, 棉花, 鐵, 鐵鋼等을 供給치 안는다. 伊太利는 此等商品을 거의 全部 外國으로부터 求코잇는터임으로 이것이 禁止되면 軍事行動이 制肘되고 特히 石油供給을 斷絶하면 伊太利海軍은 困難하다.

一、伊太利産과 伊太利商品을 船에 積載치안는다. 이미 英國 海運集會所는 封鎖港向貨物의 積出拒絶을 各船主에 勸告하얏다. 또 地中海 紅海方面의 海上保險料는 世界的으로 [illegible]

[illegible]

新穀出廻期의 拂下
小農側에는 大打擊
急賣해야겟는데 新租價低落
政府는 大農만 擁護

八日 米穀委員會에서는 政府米二百萬石을 買替하기로 決定發表되엿는데 政府의 政策은 端境期의 需給不安을 緩和케함에잇다고하나 新穀이 出廻되는 此際의 拂下는 小農家에게는 오히려 苦痛이다. 그 理由는 今回의 拂下로 因하야 朝鮮의 新租의 갑이 떠러지게되니 모든農家와 公課金關係로 賣急하지안흘수업는 小農家에게는 大打擊으로서 이러한理由로몬다면 政府는 大農家를 擁護함에 不過하다고아니할수업다한다.

食糧米消費激減
凶作年임을 如實反映
米穀事情報告內容

【東京電話聯合】米穀統制委員會에서 荷見米穀局長이 報告한 最近의 米穀事情의 重要한것은 如左하다

一、最高公定價格에依한 政府米買却數量 一五五、三七一石

一、政府米現在高(九月末)

七年産米	二七、七八〇石
八年産米	五、八三九、一五五石
九年産米	六五九、八八四石
小計	六、五二六、八一九石
白米	三七、二七六石

一、日本內地의 米穀輸移出入經過

	十年 (△印減單位石)	前年比較增減
輸入(九月末까지)	四五、五五四	△一〇五、五七七
移入 朝鮮米	七、九二一、四四	△二〇、四九九
臺灣米(九月中旬까지)	四、一七二、六四六	一四三、一一〇
輸出(八月末까지)	二一八、五七五	△三二四、六六四
移出 朝鮮(九月末까지)	一八七、一五五	一五四、一二八
臺灣(七月末까지)	四、六九九	七五六
樺太(七月末까지)	一三九、〇二二	△二四、八八九
南洋群島(七月末까지)	四五、〇四二	一〇、六四五

一、一年消費實績

八月自一日乃至八月末까지의一月間 五百四十五萬一千石 一人當 八升一合으로 九年同月에比하야 總量八十四萬一千石 一人當 三合減이다 그리고 昨年十一月부터 八月까지의 消費總量은 六千百五十七萬一千石 一人當 九斗一升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各四百三十八萬五千石 一斗六升의 減으로서凶作年임을 示코잇다

殖産契令細則
審議室廻付
十一月中旬에公布

過般公布된 殖産契令의 施行細則은 殖産局에서 立案中이든바 이지음 草案을 어덧슴으로 審議室에 廻付되어 同施行細則은 約三十條로 되엇는데 審議室에서는 近近 審議에 着手하야 느저도 十一月中旬까지에는 公布하고 公布와同時에 本令의 施行을 보게될터이다

朝鮮米

七年産米	四二一、五〇一石
八年産米	九八五石
九年産米	四、九九六石

一、米穀輸入許可數量

日本內地(九月末까지)	八二、一九〇石
朝鮮(八月末까지)	三四四石
臺灣(七月末까지)	五七石

一、米穀輸出許可數量

日本內地	四三三九一石
朝鮮	一五三、四四二石
臺灣	六、五二一四石

伊『에』紛爭影響
世界物價昂騰
東京은昭和五年五月以來高指數
紐育과倫敦도新記錄

【東京電話聯合】日銀調査 內外物價指數 對數表에依하면 九月中의 世界物價指數는 生絲高를 비롯하야 農産物의 昂高와伊에 紛爭에依한 軍需品의 騰貴로 一齊히 高調를示하얏다 即東京은 一五〇、一로前月에 比하야 三分二厘强高騰하야 昭和五年五月以來의 高指數로되고 倫敦及 紐育도 前月에 比하야 二分九厘强、一分七厘强가량 各히 高騰하야 모다 一九三〇年以來의 最高指數를 示하고 巴里도同樣(八月分)二分强의 高騰을 보이엇다

◀新京도昂高

【新京電話商通】中央銀行調査九月中의 新京物價指數는 國幣建으로 一二、一로 前月에比하야 一三分八厘、前年同月에比하야 一割一分六厘가 各히上騰하야 大[illegible]

鎭南浦米穀取引所
自然消滅로閉鎖?
平壤移轉은法規上不許

鎭南浦取引所는 去夏來 成績不良으로 一時停止狀態에 이르럿는데 地方行政當局의 斡旋에依하야 간신히 復活되어 微微하나마 更生의 一步를 것고잇든바 其後漸次로 取引高가 萎縮되어 九月中은 겨우 一、二節의 取引의 成立바게는 보지못하다가 그우에 十月에 드러와서는 內部의 紛糾까지 激化하게되어 全然休所狀態에 빠젓는데이에 對하야 平壤側에서는 西朝鮮唯一의 鎭南浦取引所가 그와가티되면은 西朝鮮三道의 打擊이 不少하다하야 南取를平壤에 移轉或은 出張所를 平壤其他에 設置하자는 議論이 擡頭되고 잇다한다. 이 問題에 對하야 總督府商工課 岡信事務官은 다음과가티말한다.

鎭南浦取引所問題는 오래동안 論議되어오는 問題이다 元來 取引所란 賭博性을 內包한 一個의 經濟機構라고 보니만큼 國家에서 奬勵 又는 助長할 性質의것이아니다 國家는 그經濟事情에 依하야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그機構를 默認하는데 不過함으로 當局에서는 南取에對하야 干涉할 意思조차 업다고본다 그러기 때문에 當局이 南取를 助長하거나 그取引高助成奬勵하지도안흘것이다 現在南取는 何等의 取引도 하지 안는狀態임으로 그것이 社會에 害毒을 끼칠 慮念도 업는것이다 當局이 干涉할 理由도업다 다만自然에 맛기는것이妥當하겟다 그러고 南取를 平壤에移轉 又는 出張所設置問題를 云謂하는者도 잇는모양인데 이것은 法規上 되지못할 것이다 南取가 自然消滅이된다면 平壤에의 經濟上必要에依하야取引所가新設되는것은無妨하겟스나 移轉이라는 問題는 업게될것이오 出張所問題 亦是 그러하다. 大體로보아 鎭南浦取引所는 維持될것가치 보여지지도 안는다 云云

大日本紡績工場
各地서誘致運動

大日本紡績이 朝鮮內工場進出計劃을 세우고 小寺副社長이 渡來하야 宇垣總督과 會見後 目下工場適地를 物色中인데 同工場의 誘致에 全朝鮮各要地로부터 猛烈한 誘致運動이 惹起되고잇다 爲先 同氏渡來途中 視察한 馬山東大邱 大田等의南朝鮮에서는 特히 猛烈하야 工場敷地의 斡旋 其他의 好條件을 갓추어 誘致運動을 開始하고 一方同社의 工場計劃이 西北朝鮮地帶에 着眼하고잇다고 傳하자 鎭南浦海州龍岩浦等의 西朝鮮港地, 元山等에서도 各히 工場誘致를運動하고 그中에는總督府當局을通하야 運動하고잇다한다

朝鮮內石炭
供給不圓滑
炭價前途高難免?

石炭은 需要期를압두고 左記諸點에 依하야 朝鮮內供給이 不圓滑하야 前途昂騰이 豫想되다한다.

一、滿洲石炭은 送炭協定이잇서 朝鮮에는 四十萬噸박게 보내지안는다.

一、日本內地는 石炭作業의中心地인 九州北部에 大風水害가 잇서서 出炭量이 激減되엇고 日本內地工業發展으로 因한 消費激增에 依하야 朝鮮에올 石炭이 少할것이다.

一、朝鮮內의 出炭에 對하야서는 鐵道局의 産業開發政策上 長距離運賃割引率을 三年前부터 適用해오는터이나 朝鮮의 出炭中心地인 北朝鮮의 鐵道가 滿鐵에 移管된 關係上 鐵道局과의 連絡運輸에잇서서 低運賃으로 京城까지 오는 石炭에 對하야 貨車의 配車를 만히하고저 아니하야 石炭의 鐵道輸送이 不圓滑하다.

北部線測量隊出發

東海北部線襄陽、仁邱間線路實測을爲하야 鐵道局施設課 熊本技手一行十五名은 約二個月의豫定으로 來十二日 龍山을 出發할 豫定이다

明春配肥
倍增豫想
三百萬叺?

朝鮮農會調査 來年度配肥料豫想은約三百萬叺(十萬噸)殖價一千萬圓으로 今年百四十五萬叺에 比하야 倍增豫想이라 다음과갓다(單位叺)

京畿	四四	忠北	四四
忠南	一五	全北	三五
全南	三五	慶北	一六
慶南	一五	黃海	一五
平南	一六	平北	四七
江原	五	咸南	六
咸北	二		

그리고 全朝鮮配合肥料工場十個所는 來月中旬頃竣功될모양이며 明春肥料配合은 明年一月初부터開始되리라고한다

外安輸入必要＝最近硫安市價는 天井不知의高價를示하야 前途를 豫想할수업는狀態인바尾崎農産課技師는 다음과가티말한다

硫安高의 主要原因은 日本內地 硫安의 供給不足과 藥價高 高潮砂糖高 伊에戰爭等이다 이것을 緩和하야 市價를 내리울方法으로서는 外硫安의 輸入(二十萬噸 乃至十五萬噸)을 卽時斷行하면조흔데 現在는 商工 農林兩省이 配給聯盟에 牽制되야 困難한狀態에 잇다 總督府에서는 肥料政策의 根本的立場에서 近日中商工 農林兩當局에 對하야 斷然强硬한 意見을 表明하야 市價의 緩和를 圖할作定이다

今日財界 (九日)

◆米 [illegible]

仁川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株 [illegible]

石炭 一千二百萬噸—五百萬噸 / 銑鐵 約二十萬噸 / 鐵鋼 [illegible] / 石油 [illegible] (以下 [illegible])

京城商議選擧戰
元副會頭出馬斷念

京城商議選擧의 九日 現在 立候補者屆出은 一級에서 朴永根氏 一名으로 一級은 十六名 二級은 十二名 合計 二十八名으로 되엇다 그리고 現副會頭 元應常氏(朝鮮生命專務)는 一身上의 形便을 理由로 再出馬를 斷念하얏다 이리하야 朝鮮人側 副會頭戰이 새로 興味를 끌을게되엇다

商況 (九日)

株式 揉合裡에 鈍狀

前場揉合 歐洲時局發展性如何를 重視하면서 雙方이 氣迷에陷하야 市勢는 揉合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東新二十錢高인 百五十八圓九十錢, 日産二十錢高인 八十三圓四十錢、大新二十錢低인 九十七圓八十錢, 朝新十錢高인 二十三圓九十錢、拓新三十錢高인 十三圓五十錢에 各大引이엇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軟弱 後場은 東新百五十八圓九十錢 日産八十三圓四十錢 朝新三十圓八十錢에 保合寄後 少弱裡에大引

雙方氣迷不進

伊『에』紛爭은 開戰과同時에 材料一段落으로보아 利喰下押인後 聯盟規約十六條를 適用할 聯盟總會가 果然어떠케될지 對伊經濟制裁를 正式決定한다드래도 그實效가 어떠할것인지 疑惑을 不新하는마큼 今前場도 雙方이모다 氣迷에陷하야 積極行動을避하고 市勢는揉合이엇섯다

歐洲時局의 發展性注視

聯盟의 對伊經濟制裁가 英國의 [illegible]

期米 少堅後에 更弛

前場小戾 昨後場 阪地三十圓十九錢止와共히 二十八圓十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二十一錢인 二十八圓〇二錢高에 場을開始한後 二十八圓三十九錢까지 返戾하엿다가 十六錢에 止場할實伴하야 十九錢을 最高로 十一錢까지 反落하엿다가 結局 十四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更弛 後場은 二十八圓十九錢에 始場이엇스나 四、五節〇六錢에 低落이고 [illegible]

政府米買替로 市勢反히底强

前來 百七十丁의 反落을 告하엿든 [illegible] 熱中으로 三對七의 上短下長을 示하는 此際인만큼 當分反撥은 期待키難할모양이다 그러나 結局은 仕手의關係도 轉換될것이오 第二回豫想收穫高도 多少減收될것이다 畢竟은 昂騰하고야 말것이다 實로 農家의 惜賣은 近年의恒例로서 大凶作後에 또平年作도 못된으로 더욱 惜賣方針이 鞏固할것을 豫期할수잇스며 從하야 期正兩界를 不問하고 米價의前途는 本年보다도 又一層 高價를 示할것으로 누구나 豫測하고잇슴으로 押目을待하야 買進하는것이 良策일듯하다

阪仁稍漸擴大
當地의伸惱로

一時 二百丁까지 縮少 되엿든 阪仁兩地의 鞘는 今朝 阪地의 反撥을 示함에도 當地는 意外伸惱로 依然 二百三十餘丁으로 擴大되엿다 要하면 當地 市場은 地場의 實買成과 烏合軍의 賣熱中으로 [illegible]

市場의 感

▲지금까지는 歐洲大戰豫想市勢가잇섯고 그 反動의 利喰押 ▲이로부터는 漠然한 好材料 想起로만은 市勢의 活躍을 期할수업고 ▲事態現實化에 從하야 個個의 影響을 檢討할時期 ▲그러지라 對伊經濟制裁도 聯盟의 正式決定과 잇그 所感을 透視하여야할일 ▲이에 氣迷가 自重을 하게하는 까닭

株 今前場도 市勢는 雙方氣迷로 揉合而已

米 二百萬石의 買換決定으로 今前場은 地場買熱中의 反强之勢 ▲그러나 當地는 阪地의 反撥을 見하고도 依然伸惱 ▲實로 阪仁의 鞘二百三十丁은 찰아리 當然하다고 할수잇스나 地場買 來客買이 엇든들 今朝의 一場反撥이잇섯슬모양 ▲何如間高價에서 百七十丁이나 低落되엿스니 又復瓦落은 期待키 難할듯 ▲그러한 關係로 보아 此際의 得返은 底入의 鍛鍊이 아닐가 한다 ▲拂下에對한 行動도 旣히 一巡되고 第二回豫想은 減收를 免치못하리라는 모든 點으로보아서 押目買가 得策일모양

▲東新期氣觀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賣買高百八十枚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電通】新規材料는업스나 買方의 糶戾로 五分利物이 一齊히 買叩되고 外貨債도佛貨債三、五十錢이 急落되어 米貨共히 二、三十錢低이엇다

甲五分利 一〇四、〇〇 / 佛貨四分利 一八五、九〇

鰯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弱含 定期不透明으로 依然히 大勢買가업시 氣配十錢低唱인 九仁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 二十二圓二十錢

仁川軟調 新米出廻低에 向하야 一般이 積極的으로 買氣[illegible]

釜山同調 市場買物 千五百叺 [illegible] 九仁新米三等二十圓丁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一息 [illegible] 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五十錢

大邱閑散 拂下의 落札에 [illegible] 四等 三十圓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丁

木浦不振 正租實價旅行 [illegible] 二十九圓十錢 四等 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 十二圓〇五錢

金融 (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塊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京城絹布 ◆京城綿糸布市勢 ◆日本交易市勢 ◆大阪株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飯岸粕沖值 ◆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朝取期米 ◆株式 朝取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趙俊鎬米豆阪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應需現物販賣及換引 金代地方注文 送料先金要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 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黃金町